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 화 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선시대 노리개를 응용한
현대 장신구 디자인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미 옥

조선시대 노리개를 응용한
현대 장신구 디자인 연구

심 화 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미 옥

인 준 서

김미옥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우리나라의 장신구문화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유산으로 정교함과 화려함을 자랑하는 뛰어난 제작기법과 더불어 생활환경을 반영하는 미의식을 갖춘 독특한 조형미의 상징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전통 장신구는 서구문화가 들어온 이후 전통 양식과 서구 양식의 이중구조 속에서 쓰임이 쇠퇴하게 되었고, 현대에는 그 역할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착용이 제한적이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 장신구가 뛰어난 미적 표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장식문화에 밀려 그 쓰임이 사라져 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 장신구를 응용한 현대 장신구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전통 장식소재에 대한 재창조와 함께 문화적 개성을 찾고,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범위를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 유형 중 의복에 부착되어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던 노리개로 정하여 응용하고자 하였고, 이에 이론적 연구로서 조선시대 사회적 배경과 여성장신구 유형, 노리개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사회로 의복은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었으나 장신구는 의복과 달리 착용 면에서 체계적인 계통이 확립되었고, 신체의 위치에 따라 기능적으로 세분화 되어지는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여자 장신구는 머리에 하는 수식과, 몸에 차고 다니는 패식, 기타 장신구 등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다.

조선시대의 다양한 여성 장신구 중에서 노리개는 여자 한복의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길이에 비례를 이루면서, 색채와 형태면에서 포인트를 주어 의복에 아름다움을 배가 시켜 주었던 대표적인 장신구였다. 노리개는 띠돈, 끈

목, 주체, 매듭, 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띠돈과 주체에 표현된 형태에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염원과 생활상이 고스란히 표현되며 독특한 미적 양식을 이루었고, 금속류, 옥석류, 보패류 등의 사용과 다양한 장식 기법은 현대 장신구의 소재에 쓰여도 충분할 만큼 뛰어나고 세련된 심미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리개를 응용한 현대 장신구를 제작하는데 있어 현대적 디자인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 현재 시중에 노리개의 각 구성에 따라 매듭을 응용한 디자인, 주체를 응용한 디자인, 술을 응용한 디자인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디자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첫째, 노리개의 전통적 표현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통 장식에 대한 뛰어난 심미성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노리개가 한복에 포인트를 주며 의복을 아름답게 꾸며준 장신구였으므로, 이점을 토대로 현대 장신구에서도 의복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여 디자인 한다.

셋째, 전통 소재를 응용하되 전체적으로 현대 감각에 맞게 변형하여 세련되면서도 아름다운 심미안으로 장신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 주 장식의 모티브와 제작 장신구의 아이템을 선정하였는데, 주 장식에 있어서는 노리개의 전통 장식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부분으로 노리개의 구성 중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하며 독특한 형태로 표현됐던 띠돈과 주체부분을 모티브로 정하였다. 제작 종류에 있어서는 현대 장신구 중에서 의복에 가까이 부착되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목걸이, 브로치, 허리띠를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각각 4점씩 총 12점을 제작하였다.

노리개를 응용한 장신구 제작을 통해 노리개의 전통 재료와 형태가 현대

장신구 디자인 소재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전통 장식 소재의 확대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또한 노리개 전통 표현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현대 장신구가 독창적이면서도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재창조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전통 장식에 대한 뛰어난 심미성을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노리개 장식소재가 현대 장신구에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인식 시켜주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전통 장식을 응용한 현대 장신구 디자인을 더욱 발전시켜 국내는 물론 세계에 전통 장식 소재가 경쟁력 있는 상품의 소재로 확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노리개 및 다른 전통 장신구가 갖는 고유한 미적표현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가치 있는 매개체로서 전달되는 예술품으로 보존·계승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4
1. 조선시대 여자 장신구에 대한 고찰	4
2. 조선시대 노리개에 대한 고찰	9
III. 노리개를 응용한 작품	45
1. 노리개 매듭을 응용한 작품	45
2. 노리개 주체를 응용한 작품	54
3. 노리개 술을 응용한 작품	59
IV. 작품제작 및 해설	65
1. 제작의도 및 방법	65
2. 작품제작	67
V. 결론	110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조선시대 여자 장신구 유형.....	8
<표 2> 재료에 따른 띠돈의 분류.....	13
<표 3> 형태에 따른 띠돈의 분류.....	14
<표 4> 문양에 따른 띠돈의 분류.....	14
<표 5> 재료에 따른 주체의 분류.....	17
<표 6> 형태에 따른 주체의 분류.....	18
<표 7> 재료에 따른 주체의 상징성.....	21
<표 8> 형태에 따른 주체의 상징성.....	22
<표 9> 노리개 매듭에 쓰인 색.....	23
<표 10> 노리개에 사용된 매듭의 종류.....	24
<표 11> 노리개에 쓰인 술의 종류.....	26
<표 12> 작품 I 제작지시서.....	68
<표 13> 작품 II 제작지시서.....	72
<표 14> 작품 III 제작지시서.....	76
<표 15> 작품 IV 제작지시서.....	80
<표 16> 작품 V 제작지시서.....	84
<표 17> 작품 VI 제작지시서.....	87
<표 18> 작품 VII 제작지시서.....	90
<표 19> 작품 VIII 제작지시서.....	93
<표 20> 작품 IX 제작지시서.....	96

<표 21> 작품 X 제작지시서.....	100
<표 22> 작품 XI 제작지시서.....	104
<표 23> 작품 XII 제작지시서.....	108

그림 목 차

<그림 1> 신라시대 금제 과대와 요패	11
<그림 2> 노리개의 구성 및 명칭.....	12
<그림 3> 광다회.....	15
<그림 4> 원다회	15
<그림 5> 대삼작노리개	30
<그림 6> 중삼작노리개	30
<그림 7> 소삼작노리개	30
<그림 8> 도금삼작노리개.....	32
<그림 9> 은삼작노리개	32
<그림 10> 비취삼작노리개	32
<그림 11> 호박삼작노리개	32
<그림 12> 투호삼작노리개	35
<그림 13> 호리병삼작노리개	35
<그림 14> 문자삼작노리개.....	35
<그림 15> 박쥐삼작노리개	36
<그림 16> 동자삼작노리개	36
<그림 17> 은장도노리개.....	41
<그림 18> 바늘집노리개.....	41
<그림 19> 침통노리개.....	41
<그림 20> 향갑노리개.....	41
<그림 21> 각향노리개	42
<그림 22> 향낭노리개.....	42

<그림 23> 발향노리개	42
<그림 24> 기자(祈子)노리개	42
<그림 25> 백옥노리개	44
<그림 26> 호박노리개	44
<그림 27> 산호노리개	44
<그림 28> 매미매듭 목걸이	48
<그림 29> 안경매듭 목걸이	48
<그림 30> 나비, 끈디기매듭 목걸이	48
<그림 31> 가지방석, 귀도래매듭 목걸이	48
<그림 32> 귀도래, 안경매듭 목걸이	49
<그림 33> 장고매듭 목걸이	49
<그림 34> 안경매듭 목걸이	49
<그림 35> 나비매듭 목걸이	49
<그림 36> 가락지매듭 목걸이 I	50
<그림 37> 가락지매듭 목걸이 II	50
<그림 38> 은장식 안경매듭 귀걸이	51
<그림 39> 피불장식 안경매듭 귀걸이	51
<그림 40> 금패장식 도래매듭 귀걸이	51
<그림 41> 안경, 가락지매듭 귀걸이	51
<그림 42> 안경매듭 귀걸이	52
<그림 43> 전복술매듭 허리띠	53
<그림 44> 망사매듭 허리띠	53
<그림 45> 끈디기매듭 허리띠	53
<그림 46> 국화, 망사매듭 허리띠	53

<그림 47> 산호 브로치	55
<그림 48> 꽃 브로치.....	56
<그림 49> 연잎 브로치.....	56
<그림 50> 전통문양 브로치.....	56
<그림 51> 나비 브로치.....	56
<그림 52> 은 방아다리 목걸이.....	58
<그림 53> 나비 목걸이	58
<그림 54> 투호 목걸이.....	58
<그림 55> 딸기술 목걸이.....	60
<그림 56> 봉술 목걸이.....	60
<그림 57> 술 목걸이.....	61
<그림 58> 술 귀걸이 I	62
<그림 59> 술 귀걸이 II.....	62
<그림 60> 방망이술 귀걸이.....	62
<그림 61> 봉술 허리띠.....	64
<그림 62> 술 장식 허리띠	64
<그림 63> 술 허리띠	64
<그림 64> 작품 I의 전면.....	69
<그림 65> 작품 I의 펜던트 부분.....	70
<그림 66> 작품 II의 전면	73
<그림 67> 작품 II의 펜던트 부분.....	74
<그림 68> 작품 III의 전면.....	77
<그림 69> 작품 III의 펜던트 부분.....	78
<그림 70> 작품 IV의 전면	81

<그림 71> 작품 IV의 펜던트 부분	82
<그림 72> 작품 V의 전면	85
<그림 73> 작품 VI의 전면	88
<그림 74> 작품 VII의 전면	91
<그림 75> 작품 VIII의 전면	94
<그림 76> 작품 IX의 전면	97
<그림 77> 작품 IX의 주 장식 부분	98
<그림 78> 작품 X의 전면	101
<그림 79> 작품 X의 주 장식 부분	102
<그림 80> 작품 XI의 전면	105
<그림 81> 작품 XI의 주 장식 부분	106
<그림 82> 작품 XII의 전면	109
<그림 83> 작품 XII의 주 장식 부분	109

I.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 장신구 문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유산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으나, 서구문화가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들어오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그 쓰임이 쇠퇴하게 되었고, 현대 한국인의 인식과 관심에서도 멀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의 장신구가 형태와 표현성에 있어 외국의 장식문화를 선호하여 한국 전통 장신구의 미적표현이 사라져 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통 소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장신구의 시대별 특성 중에서 조선시대는 엄격한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사회 속에서 복식은 최소한의 구조적 요소를 활용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신구 제작과 착용에 있어서 체계적인 계통을 확립하였고, 신체의 위치에 따라 기능적으로 세분화 되어지는 양상을 보였다.¹⁾ 특히, 여자 장신구는 머리에 하는 수식과 몸에 차고 다니는 패식으로 크게 구분되어 지는데, 이 중 패식인 노리개는 조선시대 여자 한복형태와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장신구로 장식성과 실용성, 주술성을 갖추며 애용되어 왔다.

노리개는 그 형태와 색채 면에서 조선조 여인들의 의복에 포인트를 주어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며, 이러한 미적 양식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면 현대 장신구 소재로서도 그 쓰임이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1) 간호섭, “조선시대 여성수식(首飾)을 반영한 현대패션디자인연구 - 비너, 떨잠을 중심으로 -”, (사)한국궁중복식연구원 논문집, 10권 10호, 2008, p.30.

그러나 조선시대 노리개는 그 시대 의복의 특색에 맞게 제작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서양의 의복문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현대에는 그 쓰임이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글로벌화된 세계 속에 각국의 수많은 장신구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현대 의복에 맞는 장식품을 만들어 내고 있어, 노리개의 쓰임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요즘에는 특별한 날 한복을 입을 때만 패용되거나 한복을 개량한 옷에 현대적으로 변형하여 부착되기도 하나 그 수가 미비하고 형태가 한정되어 있어 장식소재로의 인식과 관심에서 점차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노리개에 대해 알아본 후, 노리개를 응용한 현대 장신구 형태를 조사하고, 이 중 옷에 가까이 부착되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장신구 아이템을 선정하여 노리개 형태의 구조적인 면을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의 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조선시대 노리개의 띠돌과 주체를 디자인의 모티브로 선택하고 특정부분을 재현하면서, 전체적인 형태는 현대적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전통 장식의 새로운 미적 표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노리개를 응용한 현대 장신구 디자인 연구는 전통장식의 소재가 현대장식에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 시켜주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상품의 소재로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노리개가 갖는 미적 표현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가치 있는 매개체로서 전달되는 예술품으로 보존·계승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전통 소재의 확대방안을 위하여 조선시대 여자 장신구 중 독특한

형태와 다양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폐식의 노리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이를 응용한 현대 장신구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그 속의 장신구 문화 및 유형, 그리고 본 연구의 모티브가 되는 노리개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한다.

둘째, 노리개의 특정 부분을 응용하여 현대적 디자인으로 제작한 작품을 논문, 잡지, 인터넷 자료 등에서 찾고, 각 구성에 맞게 작품들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정리한다.

셋째, 위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대 장신구를 제작한다. 작품제작에 있어서는 전통 노리개의 띠돈과 주체에 서 모티브를 얻어 특정 부분을 재현 및 변형하고, 전체적인 형태는 현대 장신구 중에서 의복에 가까이 부착되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목걸이, 브로치, 허리띠를 선정하여 각 4점씩 총 12점을 제작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조선시대 여자 장신구에 대한 고찰

본 장에서는 노리개를 패용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선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장신구 문화를 고찰하고 노리개와 함께 사용되었던 여성장신구 유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조선시대 사회적 배경과 장신구 문화

조선왕조는 승유억불(崇儒抑佛)정책을 국시로 하여 유교가 조선왕조의 지도이념이 되었다. 유교사상의 ‘예’를 기본으로 한 철학이념으로 통치되어 가정적·사회적 기능 중 관혼상제(冠婚喪祭)를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따라서 복식문화도 예를 표현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장 중시하였다.²⁾

한편,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사치와 퇴폐풍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근검·절약을 강조하고 사치스러운 옷차림과 장신구, 화장에 대해 엄하게 단속하여 여러 차례 금지령이 내려졌다. 그로인해 이 시대에는 신체가 정결해야 마음도 정결하다는 사상, 즉 내면의 미와 외면의 미가 동일하다는 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³⁾ 이런 사회적 인식은 조선시대 추구되는 여인상의 미의식을 바꾸게 하였고, 여자들은 몸치장에 한계를 갖게 되었다. 위의 두 배경을 통해 조선시대 여성의 치장은 평상시의 치장과 의례(儀禮)치장 이라는 이중구조를 가지며 확연히 구분되었는데, 상류사회뿐만 아니라 평민사회에서도 그러하였다. 평상

2) 유송옥, 『韓國服飾史』 (서울: 수학사), 1998, p.139.

3) 전완길, 『韓國化粧文化史』 (서울: 열화당), 1987, p.56.

시에는 검소하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장식을 최소화 한 복식을 착용했으나, 혼례, 궁중연회 등의 의례 시에는 옷차림과 장신구의 패용이 성대하여, 고려 패망의 원인이 사치와 방종이라는 조선시대 집권층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려시대보다 더욱 사치스러울 만큼 복식의 규범을 중시하였다.⁴⁾

이런 복식의 규범은 의례와 절차를 중시한 유교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며 인격미의 추구로 인식되어졌다.⁵⁾ 의관의 정체를 바르게 하기 위한 결과로 장신구의 제작도 신체의 위치에 따라 수식, 패식 등으로 세분화되어지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고, 장신구라 하더라도 순수하게 장식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는 드물며 실용적 기능, 무속적 목적을 부여하며 장신구화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⁶⁾

의례용 치장과 평상시의 치장 모두에서 보여 지는 조선시대 장신구의 특징은 문양에 있다. 조선조 장신구의 문양은 초속적(超俗的)이고 미래적(未來的)인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대신 예부터 전래되어 온 토속신앙(土俗信仰) 위에 도교 및 신선사상(神仙思想), 그리고 현세적인 유교가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 내용은 부귀, 다남(多男), 장수, 기복(祈福), 벽사(辟邪) 등인데, 이것은 미래의 행복보다는 현세의 행복을 추구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⁷⁾

이렇듯 조선시대 장신구문화는 그 시대의 사상, 가치관, 풍습 등 모든 것을 관통하여 형성되어온 미적 양식이었다.

2) 조선시대 여자 장신구의 유형

한복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층 더 몸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착용했던 조선시대 여자 장신구는 남자 장신구보다 종류가 다양하며⁸⁾ 화려하게 장식된

4) Ibid., p.72.

5) 금기숙, 『朝鮮服飾美術』 (서울: 열화당), 1994 p.160.

6) Ibid., p.133.

7) 장숙환, 『전통 장신구』 (서울: 대원사), 2002, p.15.

8) 김봉희,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의 현대적 변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7), p.17.

것이 많았다. 머리를 치장하는 수식 용품(首飾用品)으로는 첩지·비녀·뒤꽂이·떨잠·화관·족두리·댕기 등이 있었고, 몸에 차고 다닐 수 있는 각종 장식물로서의 패물(佩物)에는 주머니·노리개가 있었으며, 그 밖에는 단추·지환 등이 있었다.⁹⁾

수식 품에서 첩지는 조선시대 왕비와 내외명부(內外命婦)가 쪽머리의 가르마에 얹어 치장하던 장신구로 예장(禮狀)할 때 화관이나 족두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형태, 재료에 따라 신분을 나타내는 계급 표시로서 사용되었으며,¹⁰⁾ 비녀는 부녀자의 관(冠)이나 쪽진 머리 또는 가체를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꽂는 장신구였다. 뒤꽂이는 쪽머리 뒤에 덧꽂는 장식 역할을 했으며, 떨잠은 조선시대 여성의 최고 머리 장식품으로 대수머리, 큰머리, 어여머리를 할 때 화려하게 꽂는 장신구였다.¹¹⁾ 화관은 중국에서 들여와 조선시대에 와서 국속화된 것으로 궁중이나 반가(班家)에서 경사가 있을 때 착용하였으며, 화려한 형태로 장식적 역할이 뛰어났던 수식품이다. 족두리는 화관과 함께 부녀자들이 예복에 갖추어 쓰던 예관(禮冠)으로 기원은 몽고이며, 고려 때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댕기는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드리우는 좁고 긴 천으로, 주로 땀아 내린 머리끝에 묶어 사용되었으며,¹²⁾ 착용자의 신분과 나이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게 나뉘었다.

패물(佩物)에서는 주머니와 노리개가 있었는데, 주머니는 여자는 물론 남자와 어린아이들도 모두 찻던 장식품이다. 한복에는 원래 주머니가 없었으므로 여인들이 작은 필수품을 소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였으며, 치마끈에 매어 사용하였다.¹³⁾ 노리개는 조선시대 여자의 저고리 고름이나 치마허리에 달던 장신구로, 궁중을 비롯한 상류층에서 일반 평민 부녀자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패용되었던 것이다.¹⁴⁾

9) Ibid., p.16.

10) Ibid., p.20.

11) 김영숙, 『朝鮮朝王室服飾』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07, p.265.

12)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우리옷과 장신구』 (서울: 열화당), 2003, p.102.

13) 이성미, 『우리 옛 여인들의 멋과 지혜』 (서울: 대원사), 2002, p.61.

그 밖의 종류로는 단추와 지환 등이 있는데, 단추는 조선시대 여자 포류에 속하는 적의, 노의, 원삼, 장삼 등에 사용한 것이었는데, 국말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단추의 간소화에 따라 여름철 적삼이나 마고자 등의 고름 대신에도 사용되었던 장신구이다.¹⁵⁾ 지환은 손가락에 끼는 장신구로, 두 짝으로 된 것을 가락지라 하고 한 짝으로 된 것을 반지라 하였다. 가락지는 금, 은과 백옥, 호박 등의 보석으로 만들었는데, 신분에 따라 사용에 차등이 있었고, 계절에 따라서도 종류를 다르게 하여 사용하였다.¹⁶⁾

위와 같이 살펴본 조선시대 여자 장신구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4)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op. cit., p.120.

15) 유희경, 김문자, 『개정판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1/2002, p.312.

16) 담인복식미술관 『담인복식미술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p.122.

<표 1> 조선시대 여자 장신구 유형

구분	유형	사 진	용 도	특 정
수식 (首飾)	첩 지		화관과 족두리를 고정시키는 역할 및 가르마에 얹어 치장하던 장신구.	황후는 용첩지, 비(妃), 빈(嬪)은 봉첩지, 내외명부는 개구리첩지를 사용.
	비녀		의례용 관이나 가발, 쪽진 머리를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	쓰인 재료와 잠두(蠶頭)의 수식에 따라 종류가 다양함. 용, 봉황비녀는 왕실에서만 착용함.
	뒤꽂이		쪽진 머리 뒤에 덧꽂아 장식하는 역할.	기능과 조형에 따라 일반, 빗치개, 귀이개, 말뚝 뒤꽂이 등으로 나뉨.
	떨 잠		왕실과 상류층 부녀자가 어여머리, 큰머리를 할 때, 중앙과 양쪽에 꽂는 장신구.	원형, 각형, 나비형 등의 옥관에 진주, 산호 등의 보석과 용수철의 떨을 붙여 장식함.
	화 관		궁중이나, 반가에서 경사 시 활옷, 당의를 입을 때 착용한 예관(禮冠).	검은 종이로 관을 모양을 만들고 석용황, 밀화 등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밈.
	족두리		예복에 갖추어 쓰던 예관(禮冠)	어염족두리, 민족두리, 꾸민족두리, 흰 족두리 등이 있음.
	댕 기		머리를 묶거나 고정할 때 사용.	제비부리댕기, 쪽댕기, 말뚝댕기, 도투락댕기, 뱃씨댕기 등이 있음. 금박이나 보석을 사용하여 장식하기도 함.
패식 (佩飾)	주머니		돈이나 소지품을 넣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과 장식적 도구로도 사용됨.	등근 두루주머니와 각이진 귀주머니가 대표적. 수를 놓거나 괴불, 연밥 등을 달아 장식하기도 함.
	노리개		저고리고름이나 치마허리에 달던 장신구.	띠돈, 끈목, 주체, 매듭, 술로 구성되며, 주체의 크기, 형태, 재료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
기타	단 추		여자 포류인 원삼, 장삼 등에 사용하거나 마고자 등의 고름 대신에 사용하기도 함.	금, 은, 옥석, 매듭 등으로 각종 모양을 만들어 장식함.
	지 환		손가락에 끼는 장신구로 두 짝은 '가락지', 한 짝으로 된것을 '반지'라 함.	금, 은, 백옥 등 각종 보석으로 만들며, 계절에 따라 종류를 다르게 하여 사용함.

2. 조선시대 노리개에 대한 고찰

노리개는 조선시대 여자 한복의 저고리와 치마길이에 비례를 이루면서, 색채 면에서 포인트를 주어 의복의 아름다움을 배가 시켜주었던 대표적인 장신구였다. 또한 그 형태 속에 여인들의 염원과 생활상을 담으며 독특한 미적 표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노리개의 가치는 매우 특별하다. 이러한 미적 양식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면 노리개는 현대 장신구 소재로서도 그 쓰임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전통 소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주제로 노리개를 채택하여 연구하고 현대적 디자인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1) 노리개의 개념 및 구성

(1) 노리개의 개념

노리개는 조선시대 여자의 저고리 고름이나 치마허리에 달았던 것으로, 궁중을 비롯한 상류층에서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패용되었던 장신구이다.¹⁵⁾

노리개의 기원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복식의 변천과정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삼국시대는 남녀 모두 유(濡)와 고(袴)를 기본복식으로 착용하였고, 여자들은 고(袴)위에 상(裳)·군(裙)을 입기도 하였다. 저고리의 길이는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 형태였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둘렀는데, 이 허리띠에는 다양한 패물을 달아 장식하는 요패(그림 1)를 차고 다녔다. 또한 서공의 [고려도경]을 보면 “고려시대 귀부인들이 푸른색 조이는 두건에 물들인 끈(감람 빛 넓은 허

15)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op. cit., p.120.

리띠)으로 금방울을 매단다. 비단 향주머니를 차는데 향주머니가 많을수록 부귀한 집안사람이다.”¹⁸⁾ 라고 한 바 이 시대에도 장식물을 허리끈에 차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허리에 차고 다니던 장식물이 고려 말 몽고복식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저고리가 치마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고 옷고름이 보편화 되어 장식물을 옷고름에 차게 되었고 이것이 조선시대 노리개로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¹⁹⁾

조선시대에 들어 노리개는 궁중의 왕족과 품계 높은 내명부, 반가의 귀부인, 민가의 부녀들에게까지 모두 애용되었지만, 패용하는 격식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소재와 크기 등에서 상·하 계층의 차이가 있었고²⁰⁾ 의례(儀禮) 때에는 일상의 노리개와 구분하여 패용해야 했다. 또한 노리개는 패용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기도 하였다.

궁중에서 노리개를 찰 수 있는 여인은 왕비와 왕세자빈, 정일품 품계를 받은 내명부, 공주·옹주와 종친녀, 품계가 높은 외명부뿐이었다. 이들은 대개 큰머리를 하는 대례복에 대삼작, 당의 차림의 소례복에는 중삼작, 일상복에는 소삼작노리개를 패용하였다.

반면 같은 궁중 여인이라도 낮은 급의 나인들은 평생의 한 번 관례(冠禮) 때를 제외하고는 노리개 패용이 금지되었다. 이들의 관례는 평생 궁중 생활을 맹세하는 의식이나 다름이 없었으므로 모든 예식을 혼례에 준하였고, 이에 따라 옥색 반회장저고리와 겹치마, 원삼에 노리개를 착용 하였다.²¹⁾ 양반계급에서는 귀한 노리개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 가풍을 전하였고, 예물로서 교환하기도 하였다. 반면, 기생은 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고가의 노리개를 패용하는 사치를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가난한 백성들은 값비싼 금은이나 보패물의 노리개를 장만할 수가 없어서 그들 나름대로 형편에 맞게 꾸

18) 서금, 조동원 외4인 국역, 『고려도경』 (서울: 황소자리출판사), 2005, p.258.

19) 홍복의, “遺物 繡노리개와 現代 繡노리개의 比較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p.6.

20) 이경자, 『전통 한복의 멋 노리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p.12.

21) Ibid., pp.114-115.

민 자수 노리개나 바늘집노리개를 고름에 달아 장식하였다.

노리개는 계절에 따라서도 그 패용을 달리 하였다. 5월 단옷날부터 옷이 흰색일 때는 옥·비취노리개를 패용하였고, 8월 보름 이후 색옷을 입을 때는 색이 각기 다른 삼작노리개를, 가을·겨울에는 주로 금은노리개를 사용하였고, 겨울에는 자마노·밀화 등의 삼작노리개를 패용하였다.²²⁾

이처럼 노리개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천하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고유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여인들의 미적표현 충족과 더불어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매김 하였던 장신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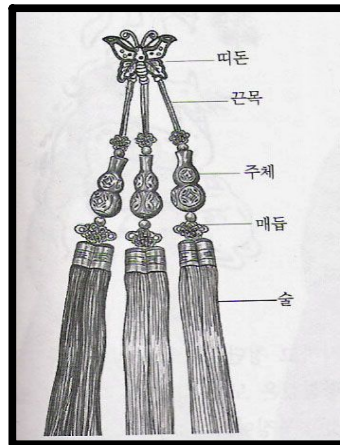


<그림 1> 신라시대 금제 과대와 요패
(출처: 韓國化粧文化史 p.121)

22) 전완길, op, cit., p.138.

(2) 노리개의 구성

띠돈, 끈목(多繪), 주체(佩物), 매듭, 술로 구성되는 노리개의 각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그림 2> 노리개의 구성 및 명칭

(출처: 한국복식문화사전 p.109)

① 띠돈

띠돈은 노리개의 최상단에 위치한 고리로서 옷고름 또는 예복의 띠에 걸 때 사용하는 걸개 장식이다. 띠돈의 뒷면에는 U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어 그곳에 1개 또는 3개의 주체를 연결한 끈(多繪)을 매듭지어 연결한 후 저고리 고름 위나 원삼, 활옷 등의 띠인 대대(大帶)에 꽂게 되어 있다. 띠돈이 없을 경우에는 치마의 허리나 고름에 노리개 윗부분의 매듭 고리를 걸어 찻다. 띠돈에는 다양한 재료가 쓰였는데 이것은 크게 금속류, 보패류, 옥석류로 나눌 수 있다. 금속류에는 도금, 은, 은에 칠보를 입힌 것 등이 쓰였고, 보패류에는 호박, 산호 등이 있으며, 옥석류에는 백옥, 비취 등이 있었다. 형태는 사각형·문자형

· 원형 · 동물형 · 화형(花形) · 사엽형(四葉形) 등이 있으며,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만든 띠돈에 식물, 동물, 문자 등의 문양을 넣어 장식하기도 하였다.²³⁾ 띠돈은 노리개의 구성에 있어서 주체와 같이 금은, 보석류를 사용하며 장식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주체에 비해 그 크기가 작고 의미를 깊게 두지 않는다. 띠돈을 재료, 형태, 문양별로 분류하면 <표 2, 3, 4>와 같다.

<표 2> 재료에 따른 띠돈의 분류




재료의 종류		사 진	비 고
금속류	도금		궁중에서도 순금은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도금을 사용함.
	은		도금, 은에 산호구슬을 엮어 장식한 것도 있음.
	은 + 칠보		파란을 입혀 장식한 것도 있음.
보패류	호박		호박, 산호, 옥, 비취 등 보석류 띠돈 중엔 은이나 도금 등을 사용하여 뒤판을 덧대고, 고리를 만든 것도 있음.
	산호		
옥석류	백옥		
	비취		

23) 이경자, 홍나영, 『한국의 옛 노리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p.3.

<표 3> 형태에 따른 띠돈의 분류

형태의 종류	사 진	비 고
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나타남.
원 형		타원형, 원형 등이 주로 나타나며, 입체적, 납작형 등으로 조각됨.
사엽형(四葉形)		-
문자형		주로 수(壽), 복(福)등의 문자가 형상화 되어 나타남.
식물형		식물형 띠돈은 대부분 화형(花形)모양이지만, 드물게 죽절(竹節)모양으로 된 것도 있음.
동물형		박쥐와 나비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남.

<표 4> 문양에 따른 띠돈의 분류

종 류	사 진	비 고
식물문		국화, 매화등의 화형(花形)문양이 많이 나타남.
동물문		동물문양은 동물 형태와 모양이 비슷함.
문자문		장수와, 부, 기쁨을 나타내는 문자를 형상화 한 것이 많이 나타남.

② 끈목

끈목이란 매듭을 하기 위해 여러 올의 실로 짠 끈을 말한다. 끈목의 시초는 초목의 넝쿨이나 나무껍질 또는 짐승 가죽을 그대로 길게 찢은 것이었는데 이것을 더 질기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 두 가닥으로 꼬아 쓰다가 점차 세 가닥, 네 가닥, 그 이상 꼬아 짜는 끈으로 발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끈을 다회(多繪)라고 하였는데,²⁴⁾ 이 다회의 종류에는 광다회<그림 3>와 원다회<그림 4> 두 가지가 있다. 광다회는 주로 옷에 두르는 허리띠로 쓰인 폭이 넓고 납작한 평직의 것을 말하며, 원다회는 노리개, 주머니 끈 등과 각종 유소를 만드는 소재로 쓰기 위해 짜는 것으로 끈목의 둘레가 둥근 것을 말한다. 원다회에는 4사와 8사가 있는데 이는 다회를 치는 데 드는 실의 가닥수에 따른 것으로 노리개, 주머니 등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은 8사로 된 다회였다.²⁵⁾

끈목은 주체, 매듭, 술을 연결하여 줌으로써 노리개의 기본 형태를 잡아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요소였다.²⁶⁾



<그림 3> 광다회



<그림 4> 원다회

(출처: 전통 매듭과 현대의 만남 p. 50, 121)

24) 이혜영, “바다이미지를 응용한 노리개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조형정보대학원, 2002), p.5.

25) 임상임, 안명숙, 『전통매듭』 (서울: 교문사), 2003. p.14.

26) 이정희, “규방용품의 형태를 응용한 금속노리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2), p.13.

③ 주체

주체는 노리개의 주장식이 되는 부분으로 그 재료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였다.

재료는 띠돈에 사용된 것과 같이 금속류, 보패류, 옥석류 등이 있으나 종류가 더욱 다양하게 쓰였다. 금속류에는 도금, 은(銀), 은에 파란과 칠보를 입힌 것, 백동(白銅) 등이 있고, 보패류에는 산호(珊瑚), 진주(眞珠), 호박(琥珀), 금패(錦貝) 등이 있으며, 옥석류에는 백옥(白玉), 비취(翡翠), 자마노(紫瑪瑙), 공작석(孔雀石) 등이 있다. 그 밖에 수(繡), 니사, 말총(馬尾), 호랑이 발톱 등이 사용되었다.

형태는 자연형태와, 생활용품형태, 길상어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형태의 동물문에는 박쥐, 나비, 매미, 원앙, 벌, 물고기 등이 있고, 식물문에는 고추, 가지, 포도, 석류, 천도 등이 표현되었다. 생활용품형태에는 호리병, 북, 버선, 도끼, 방울, 투호(投壺), 장도, 바늘집, 향주머니 등이 있고, 길상어문에는 다남자(多富貴), 수부귀(壽富貴)자 등이 표현되었다. 그 밖에 동자모양과 불수(佛手) 등도 나타나 있다.

이러한 재료와 형태들은 그 자체로서 뛰어난 심미성을 지니며 중요한 장식역할을 하였다. 노리개 주체에 쓰인 재료와 형태를 나누어 정리하면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재료에 따른 주체의 분류

재료의 분류	종 류				비 고
금속류					순금은 실제로는 쓰이지 않음. 대부분 도금을 사용함.
	도금	은(銀)	백동(白銅)	은 + 칠보 · 파란	
보패류			 		이 밖에 보패류에는 대모(玳瑁) 옥석류에는 청강석(靑剛石), 금강석(金剛石) 등이 있으나 조사한 유물 중에선 확인된 것이 없음.
	산호(珊瑚)	진주(眞珠)	호박(琥珀) · 금패(錦貝)		
옥석류					중에서 확인된 것이 없음.
	백옥(白玉)	비취(翡翠)	자마노(紫瑪瑙)	공작석(孔雀石)	
기 타					목재 등의 재료도 나타남.
	수(繡)	니사(泥麁)	말총(馬尾)	호랑이 발톱	

<표 6> 형태에 따른 주체의 분류

형태의 분류		종 류				비 고
자연 형태	동물문					거북이, 봉황, 학 등의 문양 도 나타남. 목단, 불로초, 국화 등의 문 양도 있음.
		박 쥐	매 미	나 비	원 앙	
						
		벌	물고기	해 태	용	
	식물문					
		고 추	가 지	포 도	석 류	
						
		천 도	연 꽃	대나무	괴 불	
생활용품 형태					주머니, 필낭, 벼루 등도 생 활용품 형태에 나타남.	
	호리병	북	머 선	도 끼		
						
	방 울	투호(投壺)	장 도	바늘집		
길상어문					-	
	다남자 (多男子)		수부귀(壽富貴)			
기 타					태극문, 기하문 등도 나타남.	
	동 자		불 수(佛手)			

주체에 사용된 재료와 각각의 형태는 장식소재로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미적 표현이지만 그와 더불어 내면적으로 상징성과 실용성을 담고 있었다.

주체에 사용된 다양한 재료 중에 뚜렷한 상징성과 실용성을 나타낸 재료로는 산호, 호박, 백옥, 향(香), 호랑이 발톱 등이 있었다. 산호의 붉은색은 벽사를 의미하는 색으로 간주되어 사용되었고, 산호가지는 자손의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여 부녀자들에게 애용된 재료였다. 호박의 가루는 상처 난 부분에 바르면 지혈의 효과가 있어 상처 치유 및 장수를 상징하는 재료로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백옥이 액을 막는 신령한 힘이 있다고 여겼고, 담록색(淡綠色) 또는 담회색(談會色)을 띠는 보석의 색이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여겨 귀한자손(金枝玉葉)을 뜻하기도 하였다. 향(香)은 부정(不淨)을 막아 정신을 맑게 하는 힘이 있다고 여겨져 노리개에 향갑속이나 각향 등으로 만들어 패용하였고, 위급 시에는 약으로도 쓰이는 등 실용성을 겸한 재료였다. 호랑이 발톱은 호랑이의 힘을 받아 악을 물릴 칠 수 있다고 믿어 벽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²⁷⁾

주체에 나타난 형태는 크게 자연형태와 생활용품에서 본 뜬 형태로 나누어진다. 자연형태에는 동물문과 식물문이 있는데, 동물문에는 박쥐, 나비, 벌, 원앙, 매미, 물고기 모양 등이 있다. 박쥐는 편복이라고도 하며, 복(蝠)이 복(福)과 동음이라 하여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왕성한 번식력의 상징으로 다남과 장수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나비는 주로 한 쌍으로 하여 패용되었는데, 이는 부부화합을 상징한다. 벌은 부부애와 가족의 화목, 또는 다남(多男)을 상징하는 동물로 주체에 사용되었고, 원앙도 부부화합과 집안의 백년화목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다. 매미는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껍질을 벗고 성충으로 변신하는 능력의 동물로²⁸⁾ 영생불멸의 상징하였다. 물고기 한 쌍은 부부화합을 상징하며 물고기 중 잉어는 등과와 자손의 번창을 의미한다.²⁹⁾

식물문에는 고추·가지, 포도·석류, 천도 등이 있는데, 고추와 가지는 다남

27) 이경자, op. cit., p.32.

28) 임영주, 『한국의 전통문양』 (서울: 대원사), 2004, p.177.

29) ibid., pp.126-127.

(多男)을 상징하는 열매로 여겨졌고, 포도와 석류는 씨앗이 많은 과일로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였다. 천도는 전설의 과일로 삼천 년 만에 한 번 꽃이 피고 삼천 년 만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여 장수를 의미하였다.³⁰⁾

생활용품에서 모양을 본 뜬 형태에는 호리병, 북, 버선, 도끼, 방울, 투호, 장도, 바늘집 등이 있다. 호리병은 허리에 차는 물이나 술을 담은 병으로 여성의 슬픔, 노여움, 기쁨을 호리병에 담고 인생의 먼 길을 감정을 쏟지 말고 잘 참으라는 부덕(婦德)을 의미한다.³¹⁾ 북은 부부의 화합을 상징하며 버선은 장수를 의미한다. 도끼는 벽사와 임신을 염원하는 상징물이면서 아들의 출세를 바라는 염원도 담고 있다. 방울은 소리가 악을 쫓고 경사를 부른다고 여겨졌으며, 투호는 한해의 액을 막는 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장도는 여인들에게 호신용의 도구로서 쓰이거나 위급 시 죽음으로 정절을 지키는 기개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바늘집은 바늘을 꽂아두는 실용적인 목적과 함께 여인들에게 침선을 가까이 하라는 부덕(婦德)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그 밖에 동자와 불수(佛手)가 있는데, 동자는 아들을 순산(順産)하고픈 염원의 상징이었으며, 불수(佛手)는 부처님의 손을 담은 남방의 과일로 복을 상징하였다.³²⁾

이렇듯 조선시대 여인들은 염원과 생활상을 재료의 쓰임과 형태에 고스란히 표현했기 때문에 주체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좋은 방안이 된다. 주체의 재료와 형태에 나타난 상징성을 살펴보면 <표 7>, <표 8>과 같다.

30) Ibid., p.155.

31) 홍복의, op. cit., pp.25-26.

32) 임영주, op. cit., pp.156-157.

<표 7> 재료에 따른 주체의 상징성

재 료	상 징 성
산 호	산호의 붉은색은 벽사를 의미. 자손번영을 상징함.
호 박	질병예방과 치유 및 장수를 상징.
백 옥	담록색(淡綠色)또는 담회색(淡灰色)을 띤 보석. 액을 막는 신령한 힘이 있다고 여겨짐. 귀한자손(金枝玉葉), 고귀함과 아름다움의 상징.
향(香)	향내는 부정(不淨)을 막아 정신을 맑게 하는 힘이 있다고 여겨짐. 위급 시 약으로 쓰임.
호랑이 발톱	호랑이의 힘과 용맹함의 기(氣)를 받아 사악함을 물릴 칠 수 있다고 여겨 벽사(辟邪)의 의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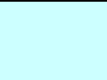
<표 8> 형태에 따른 주체의 상징성

분 류		종 류	상 징 성
자연 형태	동물문	박 쥐	편복(蝙蝠)의 복(蝠)이 복(福)과 동음 이라 하여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짐. 다남과 장수의 상징이기도 함.
		나 비	나비 한 쌍은 부부화합을 상징함.
		벌	부부애와 가족의 화목, 다남(多男)의 상징.
		원 양	부부화합과 백년화목을 상징함.
		매 미	영생불멸의 상징.
		물고기	한 쌍의 물고기는 부부의 화합을 의미. 잉어는 등과와 자손의 번창을 의미.
	식물문	고 추 · 가 지	다남(多男)의 상징.
		포 도 · 석 류	자손의 번창을 뜻함.
		천 도	장수를 상징함.
		호리병	부덕(婦德)의 상징.
생활용품 형태	북	부부화합을 상징.	
	버 선	장수를 의미.	
	도 끼	돌림병의 병귀(病鬼)를 쫓는다는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임신을 염원하는 상징이기도 함. 노리개의 주체에선 주로 도끼 셋을 한 벌로 엮어 사용했는데, 이는 아들이 관직에 나아가 삼정승(三政丞)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염원의 뜻이었음.	
	방 울	방울의 소리가 악을 쫓고 경사를 부른다고 믿었음.	
	투 호	‘투호놀이’의 향아리를 말함. 화살을 향아리에 넣듯, 액을 향아리에 담아 화를 면하고 한해를 편히 지내라는 뜻을 담고 있음.	
	장 도	죽음으로써 수절한다는 기개의 상징. 장도는 호신용 뿐 아니라 은수저를 덧붙여 음식을 독을 판별하는 역할도 하였음.	
	바늘집	침선(針線)을 가까이 한다는 부덕(婦德)의 상징. 바늘을 꽂아 두는 실용적 역할도 함.	
	기 타	동 자	신령의 가호를 받아 아들을 순산(順産)할 수 있다고 여겨짐.
불 수 (佛手)		부처의 손을 닮은 남방의 과일. 불(佛)이 복(福)받음과 유사하여 복의 상징으로 여겨짐.	

④ 매듭

매듭은 주체를 중심으로 상하에 있으며, 주체를 좀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역할을 한다. 색채는 홍(紅)·남(藍)·황(黃)의 삼원색을 기본으로 하며 그 외에 색으로는 분홍·연두·보라·자주·옥색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노리개 매듭에 주로 사용되었던 색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노리개 매듭에 쓰인 색

분 류	기본 삼원색			기본 삼원색 외에 많이 쓰인 색				
색								
	홍(紅)	남(藍)	황(黃)	분홍	연두	보라	자주	옥색

매듭을 만들 때는 노리개의 형태와 크기를 고려하여 차이를 두었다. 대체로 대삼작과 중삼작처럼 크고 호화스러운 것에는 자그마한 매듭을 사용했고, 크기가 작은 소삼작에는 다양한 매듭을 번갈아 엮어 매듭 부분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였으며, 금 삼작·은 삼작·옥 삼작처럼 주체가 무거운 것은 중간 크기의 매듭을 사용하였다.³³⁾ 매듭은 맺는 모양에 따라 그 종류가 도래매듭, 연봉매듭, 생쪽매듭, 장고매듭, 가지방석매듭, 잠자리매듭, 나비매듭, 국화매듭 등으로 나뉘며 이 중 노리개에 자주 사용되었던 매듭은 도래매듭, 생쪽매듭, 나비매듭, 국화매듭, 장고매듭 등이었다.

도래매듭은 전통매듭 중 기초적인 매듭으로 대구와 남원지방에서는 도리매듭이라 불렀고, 생쪽매듭은 환희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부녀자들에게 많이 애용된 매듭으로³⁴⁾ 당초(唐草)문양매듭이라고도 하였다. 나비매듭은 다남, 부부화합, 장수 등을 상징하며 매는 모양에 따라 바로 매면 압나비, 거꾸로 매면 수

33) 전완길, op. cit., p.122.

34) 임상임, 안명숙, op. cit., p.38.

나비매듭이라 하였고,³⁵⁾ 국화매듭은 자손번창과 성공을 상징하며 전통매듭의 주간(主幹)을 이루는 매듭으로 단작노리개에 많이 사용되었다. 장고매듭은 정(井)자가 세 개 나타나는 것으로 대구와 남원지방에서는 삼정자(三井字)매듭, 궁중에서는 이귀매듭이라 불렀다.³⁶⁾

노리개 장식에 주로 쓰인 매듭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노리개에 사용된 매듭의 종류

종 류	모 양	내 용	상 징
도래매듭		기초적인 매듭. 대구와 남원지방에서는 도리매듭이라 부름.	-
생쪽매듭		당초(唐草)문양매듭이라고도 함.	환 회
나비매듭		매듭을 바로 매면 암나비매 듭이고 거꾸로 매면 수나비 매듭이라 하였음.	다남, 다산 부부화합, 장수
국화매듭		전통매듭의 주간(主幹)을 이 루는 매듭. 단작노리개에 많이 사용됨.	자손번창, 성공
장고매듭		대구와 남원지방에서는 삼정 자(三井字)매듭이라 하며, 궁 중에서는 이귀매듭이라 부름.	-

35) Ibid., p.32.

36) Ibid., pp.40-41.

⑤ 술

노리개의 술은 유소(流蘇)라고도 부르는데, 다양한 빛깔의 색으로 물들인 명주실을 여러 종류의 끈을 쳐서 용도에 따라 매듭을 맺고, 그 끝에 술을 달아 드리운 것을 말한다. 노리개에 달리는 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끈목과 주체 아래 부분에서 안정된 비례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술은 상단부분의 모양에 따라 봉술, 딸기술, 낙지발술, 방울술, 방망이술, 전복술, 금전지술, 잔술 등으로 나뉘며 노리개에 주로 사용된 술은 봉술, 딸기술, 낙지발술, 방울술 등이다.

봉술은 봉을 감을 때, 새기는 글자에 따라 ‘왕(王)’자, ‘수(壽)’자, ‘희(喜)’자 봉술 등이 있으며, 봉을 다는 개수에 따라 2봉, 3봉, 5봉술 등으로 나뉜다. 주로 노리개, 선추, 남바위, 아얌 등에 사용되었다. 딸기술에는 홀, 겹, 색동 딸기술이 있으며 주로 도포 끈, 노리개, 선추, 각종 실내장식용 유소, 가마 등에 사용되었다.³⁷⁾ 낙지발술은 술의 역할을 하면서 끈으로 만든 술이라 하여 끈술이라고도 하며 종류로는 1봉, 2봉, 3봉 낙지발술 등이 있고, 주로 노리개, 왕실용 가마의 유소 등에 사용되었다. 방울술은 12사 끈목으로 만든 술로 연봉매듭의 머리 모양이 방울과 같다하여 방울술이라 불리었으며 남자용 선추 끝, 수 박쥐노리개 등에 사용되었다.³⁸⁾

노리개에 주로 쓰인 술의 종류에 대해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37) 국립민속박물관, 『여성의 손끝으로 표현된 우리의 멋 -혼례자수품과 장신구-』 (서울: 신유문화사), 1999, p.134.

38) 임상임, 안명숙, op. cit., p.19.

<표 11> 노리개에 쓰인 술의 종류

종 류	모 양	특 징
봉 술		<p>왕(王)자봉술, 희(喜)자봉술, 수(壽)자봉술이 있음. 봉의 수에 따라 2봉술, 3봉술, 5봉술 등으로 나뉨. 노리개, 선추, 귀걸이, 남바위, 아얌 등에 술이 사용되었음.</p>
딸기술		<p>홀 딸기술, 곱 딸기술, 색동 딸기술이 있음. 도포 끈, 노리개, 선추, 각종 실내장식용 유소, 가마 장식등에 사용되었음.</p>
낙지발술		<p>술의 역할을 하면서 끈으로 만들어 끈술이라 고도 함. 1봉낙지발술, 2봉낙지발술, 3봉낙지발술 등이 있음. 노리개, 왕실용 가마의 유소 등에 사용되었음.</p>
방울술		<p>12사 끈목으로 만든 술. 연봉매듭의 머리모양이 방울 모양 같다 하여 방울술이라 부름. 남자용 선추 끝, 수 박쥐노리개 등에 사용되었음.</p>

2) 노리개의 종류와 특성

노리개는 주 장식으로 쓰였던 주체의 형태와 재료에 의해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 졌다. 또한 패용하는 개수에 따라서도 그 종류가 나뉘어 졌는데, 세 개를 한 벌로 패용하면 삼작(三作)이라 하였고, 하나를 패용하면 단작(單作)이라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작(五作)과 칠작(七作)노리개도 있었으나, 대부분 사용되었던 노리개는 삼작과 단작 노리개였다.

본 장에서는 노리개의 규모가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삼작과 단작으로 종류를 크게 나누고 삼작노리개는 크기, 재료 및 형태에 따라, 단작노리개는 역할에 따른 분류와 주체의 재료에 따른 분류 등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노리개의 종류는 궁중유물전시관, 태평양박물관, 담인복식미술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석주선 민속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한 유물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삼작(三作)노리개

삼작(三作)은 세 개의 주체를 한 벌로 꿰어 패용하는 것으로 가례(嘉禮)·혼례(婚禮)등 경사가 있을 때 예복착용과 함께 사용되었던 노리개다. 특히 왕실의 가례나 왕의 탄신일 같은 축의일에는 왕비나 그날 초대받은 부인들까지 삼작노리개를 찻으며, 평상시에도 왕비가 대비전에 문후 드릴 때에는 금박 스란 치마에 당의를 입고 삼작노리개를 찻다고 한다.³⁹⁾

삼작(三作)이란 조선시대 조부모·부모·아들과 며느리 삼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 제도 속의 안정된 조화를 뜻한다.⁴⁰⁾

39) 김은영, 『전통매듭』 (서울: 대원사), 1989, p.96.

40) 유희경, 김문자, op. cit., p.307.

삼작노리개는 주체의 크기에 따라 대삼작, 중삼작, 소삼작으로 구분되어지며, 주체의 재료와 형태에 따라서도 명칭이 붙여진다. 재료에 따라서는 도금, 은, 비취, 호박삼작 등이 있고, 형태에 따라서는 투호, 호리병, 문자, 박쥐, 동자삼작 등이 있다.

① 크기에 따른 분류

a. 대삼작(大三作)노리개

대삼작노리개는 노리개 가운데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것으로 주로 궁중에서 원삼이나 활옷 등 예복의 대대(大帶)에 걸쳐 사용하였다.⁴¹⁾

궁중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주체는 밀화 덩어리와 산호가자, 그리고 옥나비 한 쌍이었다.

밀화는 질병예방과 치유를 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오랜 세월을 견디어 만들어진 것인 만큼 장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산호는 균을 이루어 자생하므로 자손 번영의 상징을 지니며 산호의 붉은색은 벽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옥나비 한 쌍의 의미는 나비의 형상이 숫자 8자와 같다 하여 두 마리의 나비를 쌍으로 하는 것은 숫자 88로 보아 장수를 상징하였다.⁴²⁾ 또한, 한 쌍의 나비는 부부화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삼작노리개의 술은 주로 홍·황·남 세 가지색의 낙지발술을 사용하였다.

대삼작(大三作)에는 은대삼작노리개도 있는데, 이 노리개는 호랑이 발톱과 투각된 향갑, 커다란 나비에 문양이 음각된 것으로 주체를 이루고 있다.⁴³⁾

호랑이 발톱은 벽사의 의미로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기운을 받아 사악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수호신의 상징을 나타내는 주체이다. 나비는 장수를 의미

41) 담인복식미술관, op. cit., p.95.

42) 차명순, 『전통매듭과 현대의 만남』 (서울: 느림출판사), 2002, pp.32.

43) 담인복식미술관, op. cit., p.104.

하고, 향갑은 안에 사향 등을 넣어 좋은 향을 풍기는 역할 뿐 아니라 위급 시 약으로도 쓰였으므로 실용적인 용도로 쓰였다.

대삼작노리개는 일반 노리개와 비교하여 주체의 재료와 형태가 훨씬 크고 화려했기 때문에 패용하는 사람의 신분적 권위와 위엄을 잘 나타내었다. (그림 5)

b. 중삼작노리개

중삼작노리개는 궁중이나 상류계급에서 주로 당의 등의 소례복을 입을 때에 패용한 노리개로 대삼작 보다 크기가 작으며 옥, 비취, 호박, 공작석 등의 보석을 사용하여 주체를 장식하였다. 중삼작에는 비취를 투호모양으로 조각하여 삼작으로 장식한 것과 공작석, 호박, 비취의 보석을 자연 상태로 가공하고 다양한 무늬를 넣어 삼작으로 장식한 것 등이 있다. (그림 6)

c. 소삼작노리개

소삼작은 주로 일반 젊은 부녀자나 어린이들이 패용하였고, 궁중에서는 왕비가 평상시에 소삼작을 패용했다고 한다.⁴⁴⁾ 소삼작은 중삼작보다 크기가 작을 뿐 형태나 재료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소삼작에는 도금, 은, 은에 칠보를 입힌 것 등의 재료를 이용해 중삼작에서 보이는 투호삼작이나 고두쇠, 도끼, 자물쇠모양의 주체를 삼작으로 달고 술을 짧게 하여 장식한 것 등이 있다. (그림 7)

44) 홍복의, op. cit., p.13.



<그림 5> 대삼작노리개
(출처: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그림 6> 중삼작노리개
(출처: 태평양 박물관 소장)



<그림 7> 소삼작노리개
(출처: 태평양 박물관, 석주선 기념박물관 소장)

② 재료에 따른 분류

a. 도금삼작노리개

조선시대에는 사치를 금하기 위해 왕실에서도 순금 장신구를 사용하지 않고, 은에 금도금을 하여 사용하였다. 도금노리개는 주로 가을, 겨울철에 금박이나, 금직을 한 의복에 패용하였다. 도금삼작노리개에는 투호, 방아다리, 장도로 이루어진 삼작, 니사(泥糸)로 된 삼작 등 다양한 형태에 사용되어 나타나 있다. (그림 8)

b. 은삼작노리개

은삼작노리개는 삼작주체가 모두 은을 재료로 사용하고, 삼작이 각각 다른 형태로 장식되거나, 모두 동일한 형태로 장식되기도 하고, 삼작 중 하나만 다른 형태로 장식되기도 하는 등 패용하는 종류가 다양하였다. 은삼작노리개의 종류에는 방아다리, 투각된 향갑, 장도 등으로 이루어진 삼작이나, 방아다리, 문자, 장도 등으로 이루어진 삼작 등도 있다. (그림 9)

c. 비취삼작노리개

비취삼작노리개는 삼작의 주체모두 비취보석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조각하고 문양을 새겨 장식한 것인데, 대부분 형태도 삼작모두 동일하게 표현되었다. (그림 10)

d. 호박삼작노리개

비취삼작노리개와 같이 호박으로 삼작의 주체를 장식한 것으로 형태는 삼작 모두 박쥐문양으로 장식된 것과 원형의 호박에 다양한 무늬를 투각하여 장식한 것 등이 있다. 호박과 비취 등은 값비싼 보석이였기 때문에 대부분 높은 신분의 사람이 패용하였던 것이다. (그림 11)



<그림 8> 도금삼작노리개

(출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석주선 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9> 은삼작노리개

(출처: 담인복식미술관, 석주선 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10> 비취삼작노리개 <그림 11> 호박삼작노리개

(출처: 태평양 박물관 소장)

③ 형태에 따른 분류

a. 투호삼작노리개

투호는 조선시대 궁중연회 시 향아리에 화살을 넣어 승부를 가리는 놀이기구였다.

투호향아리에 뚜껑을 닫은 모양을 삼작노리개의 주체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화살을 향아리에 던져 넣는 것처럼 액을 향아리에 담아 뚜껑으로 밀봉하여 화를 면하고 그 한해를 편히 보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주체의 재료는 은과 도금이 많이 사용되었고, 삼작이 각기 다른 밀화·비취·자마노로 된 것도 있었다. 형태는 삼작 모두 동일하게 표현된 것과 세 개중 하나만 다른 형태로 표현된 것이 있었다. (그림 12)

b. 호리병삼작노리개

호리병은 표주박으로 만들어진 호리병박을 말하는 것으로, 그 모양을 본떠 삼작으로 패용한 것이 호리병삼작노리개이다. 민속신앙에는 천연두의 귀신인 두창신(痘瘡神)이 표주박을 보면 달아난다고 하여 조선시대에는 정초에 어린 아이들 허리춤에 표주박을 붉은 실로 꿰어 매달아주었다고 한다.⁴⁵⁾ 또한, 호리병박 안에는 수많은 씨앗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다산(多産)과 다복(多福)을 상징하여 젊은 부녀자들이 호리병노리개를 많이 애용한 것으로 보인다.⁴⁶⁾ 호리병삼작은 도금한 호리병모양에 방울술로 장식된 것과 비취호리병모양에 봉술로 장식된 것 등이 있었다. (그림 13)

c. 문자삼작노리개

문자삼작은 주체 형태를 목숨 수(壽), 부유할 부(富), 귀할 귀(貴) 세 글자를

45) 임영주, op. cit., p.158.

46) 차명순, op. cit., p.33.

모양대로 표현하여 부귀와 장수를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도 있고, 다(多), 남(男), 자(子) 글자를 주체로 장식하여 아들 낳기를 염원하는 것을 표현한 것 등이 있다. 주체의 재료는 은이나 은에 파란을 입힌 것 등이 사용되었다. (그림 14)

d. 박쥐삼작노리개

박쥐는 한자 표기로 편복(蝙蝠)인데 편복의 복(蝠)이 복(福)자와 같은 음이 난다 하여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또한 박쥐는 번식력이 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남(多男)과 장수를 의미하기도 했다. 박쥐삼작은 주로 궁이나 반가의 부녀자들이 행사 때 예복에 패용했던 노리개로 주체 재료는 은에 파란 입힌 것, 밀화, 비취 등이 쓰였다. (그림 15)

e. 동자삼작노리개

동자삼작의 주체는 쌍 동자들이 두 손을 모으고 쌍 상투를 틀고 나란히 서있는 형태를 삼작으로 표현한 것이다. 동자상을 형태로 사용한 것은 아들을 순산(順産)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 아들이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 본다.⁴⁷⁾ 동자삼작 주체의 재료는 산호, 공작석, 밀화로 사용되었다.

(그림 16)

47) 담인복식미술관, op. cit., p.96.



<그림 12> 투호삼작노리개

(출처: 담인복식미술관, 석주선 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13> 호리병삼작노리개

(출처: 석주선 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14> 문자삼작노리개

(출처: 석주선 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15> 박쥐삼작노리개

(출처: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그림 16> 동자삼작노리개

(출처: 담인복식미술관,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2) 단작(單作)노리개

삼작노리개 중 하나를 따로 달아 패용하거나, 독자적으로 하나로 되어 만들어진 것을 단작(單作)노리개라 한다. 단독으로 만들어진 단작노리개에는 장도노리개, 바늘집노리개, 침통노리개, 향(香)노리개 등의 주로 실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많았다. 특히 향 노리개는 향갑노리개, 각향노리개, 향낭(香囊)노리개, 발향노리개 등 그 형태가 다양하면서도 뛰어난 심미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들 낳기를 바라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염원을 표현한 주술적 역할의 기자(祈子)노리개 등도 있었으며, 옥석류, 보패류 등을 주체의 재료로 사용하여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을 표현한 단작노리개도 찾아볼 수 있다.

① 용도에 따른 분류

a. 장도노리개

장도는 칼집을 갖춘 작은 칼로 남녀 모두 사용하였던 장신구이다. 남자는 허리띠나 옷고름에 찢고, 여자는 치마 속에 차기도 하고 노리개의 주체로 하여 장도노리개로써 패용하기도 하였다. 장도의 날은 철을 사용하였고, 칼자루와 칼집은 은이나 도금, 서각(犀角), 옥, 산호, 비취 등을 사용하여 장식하였다.⁴⁸⁾ 조선시대의 장도노리개는 죽음으로 여인의 정절을 지키는 기개의 상징으로서 강조되기도 하였고, 장도에 은젓가락을 달아 음식의 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림 17)

b. 바늘집노리개

조선시대 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침선(針線)을 늘 가까이 하였고, 이것은 또

48) 이경자, op, cit., p.72.

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져 바늘집을 노리개의 주체로 하여 패용하게 되었다.

바늘집노리개의 종류는 은에 파란을 입혀 장식한 은파란 바늘집노리개와 수를 놓아 아름다움을 더한 수 바늘집노리개가 있었다. (그림 18)

바늘집의 아랫부분은 머리카락을 채워 바늘이 녹슬지 않게 하였고, 윗부분은 뚜껑역할을 하여 바늘을 꽂아 보관하도록 위아래가 분리되어 여닫을 수 있게 만들었다.⁴⁹⁾ 이런 구조는 은 바늘집노리개와 수 바늘집노리개 모두 같았다.

c. 침통(鍼筒)노리개

침통노리개는 바늘을 넣어 보관하는 침통(鍼筒)을 주체로 하여 노리개로 패용한 것이다. 침통은 은을 재료로 하여 육각기둥이나 원형기둥으로 형태를 만들고 산호 구슬을 물리거나 파란으로 꾸며 실용적인 침통에 장식성을 더하였다. (그림 19)

d. 향갑(香甲)노리개

향은 일상주변에 은은한 향취를 더하고 위급 시 약으로도 사용되는 등 그 쓰임이 실용적이었으므로 조선시대에는 노리개로 만들어 패용하거나 방에 걸어 두면서 늘 가까이 소지하였다.

향 노리개중 하나인 향갑노리개는 금, 은, 비취, 옥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길상문을 투각하거나 금, 은사를 엮어 향갑을 만들고, 갑 안에는 홍갑사(紅甲紗)를 한 겹 곱게 발라 향을 꿰게 한 장신구이다.⁵⁰⁾ 이 노리개의 주체는 상하에 작은 고리가 있어 매듭의 상 하단을 따로 맺어 향갑 속으로는 다회 끝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나, 뚜껑에만 고리를 달아 매듭에 거는 방식으로 연결하며 하단부가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⁵¹⁾ 향갑노리개 종류에는 난초문 금니사 노리개, 파란 금니사 향갑 노리개 등이 있다. (그림

49)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op. cit., p.144.

50) 유희경, 김문자, op. cit., p.308.

51) 유송옥, op. cit., p.312.

20)

e. 각향(角香)노리개

각향노리개도 향 노리개의 일종으로 여러 가지 향료와 약재를 이겨서 네모진 모양으로 찍어 주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과실이나, 십장생 등 다양한 문양을 새겨 장식하였다.⁵²⁾ 주로 여름철에 반가의 부녀자들이 패용했던 것으로 자개 상감 각향노리개와 식물문 각향노리개 등이 있다. (그림 21)

f. 향낭(香囊)노리개

향낭노리개는 주로 한단(漢緞), 공단, 금단(錦緞)등의 천 종류를 가지고 향을 넣는 주머니를 만들어 이것을 주체로 패용한 노리개이다. 향주머니의 색채는 주로 다홍 · 분홍 · 초록 · 유청색 등이 많이 사용되었고,⁵³⁾ 형태도 역시 박쥐, 매미, 나비, 천 도 모양 등으로 다양하게 꾸몄다. 또한 주체의 모양에 각종 수를 놓아 아름답게 장식하였는데, 향낭노리개의 대부분에 수가 놓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2)

g. 발향 노리개

발향은 원통형의 향나무 조각을 발 형식과 같이 일렬로 길게 늘어뜨려 꾸민 모양으로 주로 궁중의 상궁들이 치마 속에 패용하였던 노리개이다.

발향노리개의 주체는 물총새의 푸른 깃털을 붙인 향나무조각을 실로 꿰어 위아래 2단으로 각각 5줄씩 배치하고, 상 · 중 · 하 에 여러 문양의 수놓은 홍색 비단을 댄 형태를 띠고 있다. 또 좌우에는 홍색 술을 달고 아래로는 5가지색의 짧은 딸기술을 달아 장식하였다.⁵⁴⁾ 발향노리개는 일반단작노리개 형태와 달리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색채로도 푸른색과 붉은색의 대조를 이루

52) 이경자, op. cit., p.94.

53) 유희경, 김문자, op. cit., p.309.

54) 이경자, op. cit., p.98.

고 있어 전체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3)

h. 기자(祈子)노리개

조선시대에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아들을 낳아 대(代)를 잇는 것이 부녀자들의 큰 소망이 되었다. 따라서 노리개에 아들을 상징하는 주체를 달아 패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작노리개에선 고추노리개, 가지노리개, 동자노리개 등의 종류가 있다. 이 노리개들은 대부분 은에 파란을 입혀 장식하였고, 고추와 가지노리개는 각각의 모양 세 개를 한 벌로 하여 고리를 달았다. 기자(祈子)노리개들은 아들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주체에 나름의 장식을 가미함으로써 그들의 미적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림 24)



<그림 17> 은장도노리개

(출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18> 바늘집노리개



<그림 19> 침통노리개

(출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20> 향갑노리개

(출처: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그림 21> 각향노리개

(출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그림 22> 향낭 노리개



<그림 23> 발향노리개

(출처: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그림 24> 기자(祈子)노리개

(출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② 주체의 재료에 따른 분류

a. 백옥(白玉)노리개

옥은 담록색(淡綠色) 또는 담회색(淡灰色)의 보석으로, 계절에 맞추어 주로 봄이나 가을에 많이 사용되었던 노리개의 주체 재료이다.⁵⁵⁾ 또한 옥은 액을 막는다는 신령한 힘이 있다고 여겨졌으며, 귀한자손(金枝玉葉), 고귀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옥을 새, 대나무, 용, 문자 등의 문양으로 정교하게 투각하여 주체로 한 단작노리개는 단출하지만 우아하고 아름다워 궁중의 왕족을 비롯한 상류계급의 부녀자들이 평상시에 많이 패용하였다. (그림 25)

b. 호박노리개

호박은 짙은 노란색을 띠는 보석으로 가루는 지혈제의 역할을 하는 약으로도 사용되어, 질병예방과 치유 및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 노리개에 많이 애용되었다. 호박노리개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가공하여 패용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조각하여 패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26)

c. 산호노리개

산호주체는 자체로서 아름다운 심미성을 지님과 동시에 상징성도 지녔는데, 붉은색은 벽사를 의미하며, 여러 갈래로 뻗은 산호가지는 자손의 번영을 상징하여 대삼작이나 단작의 주체로 애용되어왔다. 또한 산호는 고가의 보석이었기 때문에 상류계층의 여인들에 한해 패용되었던 귀한 노리개였다. (그림 27)

55) 정진영, “조선시대 보패류의 사용과 금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p.21.



<그림 25> 백옥노리개

(출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석주선 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26> 호박노리개

(출처: 태평양 박물관,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그림 27> 산호노리개

(출처: 태평양 박물관,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Ⅲ. 노리개를 응용한 작품

조선시대 노리개를 응용한 현대 장신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현재 노리개를 활용하여 현대 장신구로 제작한 작품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조사하여 노리개를 응용한 현대 장신구를 디자인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작품조사는 노리개의 띠돈, 끈목, 매듭, 주체, 술의 각 구성 중 특정 부분을 응용한 작품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각 구성에 맞게 작품을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조사 자료는 관련논문, 서적, 잡지, 전시회 작품, 장신구 홈페이지, 기타 인터넷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응용된 작품을 살펴본 결과, 노리개의 띠돈을 위주로 응용한 작품은 찾기 어려웠으며, 끈목은 대부분 매듭과 술을 응용한 작품에 속하여 활용되었다. 따라서 매듭, 주체, 술을 응용한 작품에 한하여 자료를 찾을 수 있었고, 이에 속한 장신구의 종류를 아이템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1. 노리개 매듭을 응용한 작품

매듭을 응용한 현대 장신구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이템은 목걸이, 귀걸이, 허리띠 등이 많았고, 매듭모양은 노리개에 많이 쓰인 도래매듭, 생쪽매듭, 나비매듭, 국화매듭, 장고매듭 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모양의 매듭 등과 같이 활용되어 나타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매듭을 응용한 장신구를 아이템별로 목걸이, 귀고리, 허리띠로 나누고 각 작품에 나타난 매듭모양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목걸이

전통매듭을 응용한 목걸이는 다양한 매듭모양으로 줄과 마감장식을 꾸미고, 각 디자인에 알맞은 소재로 펜던트를 장식하여 우아하거나 또는 세련되고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매듭장 김은영 선생님 작품에는 매듭을 응용한 다양한 형태의 목걸이 작품이 나타나는데, <그림 28>은 목걸이 줄을 열은 감색의 끈목을 이용해 은 펜던트를 중심으로 양쪽을 매미매듭으로 한 쌍씩 장식하고 사이에 하늘색의 가락지매듭을 끼워 포인트를 준 작품이다. 줄 끝부분엔 도래매듭으로 장식을 더하고 도래매듭과 연봉매듭을 사용하여 마감부분을 장식하는 등 전체적으로 매듭을 이용해 목걸이 줄에 강한 포인트를 주며 세련됨을 표현하였다.

<그림 29>는 살구색의 끈목을 이용해 안경매듭으로 목걸이 줄을 장식하고 위아래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을 가운데서 연결하여 단조로울 수 있는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었다. 은 펜던트에도 가락지매듭과 도래매듭으로 장식을 더했고, 단추매듭으로 마감부분을 장식하였다. <그림 30>은 목걸이 줄엔 특별한 매듭장식을 하지 않고 펜던트 부분에 매듭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작품들로 왼쪽은 펜던트 윗부분을 수나비 매듭으로 모양을 내고 금색의 가락지매듭을 펜던트 부분과 마감장식 부분에 끼워 장식한 것이고, 오른쪽은 펜던트 아래 부분을 연봉매듭으로 장식하고 펜던트에 끈을 통과 시켜 윗부분을 끈디기매듭으로 심플하게 장식하였으며, 마감부분은 왼쪽작품과 마찬가지로 금색 가락지매듭을 끼워 장식하였다. <그림 31>는 가지방석매듭과 귀도래매듭으로 심플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의 목걸이를 표현한 작품들로, 분홍색 매듭목걸이는 펜던트 부분을 가지방석매듭과 무당벌레 모양의 펜던트로 장식하고, 줄은 2줄의 끈으로 장식 없이 심플하게 만들어 마감부분에 가락지매듭을 끼워 꾸민 작품이고, 연두색 매듭목걸이는 펜던트 부분을 개구리 모양의 펜던트 한 쌍을 대칭으로 두고 양옆을 귀도래매듭으로 두 번씩 엮어 장식한 작품이다.

<그림 32>는 2002년 5월 3일 가나아트센터 매듭전에 전시된 양순자 매듭목

겉이 작품 한 쌍으로 왼쪽 작품은 귀도래매듭과, 가락지매듭, 도래매듭을 이용해 목걸이 줄을 만들고 은으로 세팅된 보석 펜던트로 장식한 것이고, 오른쪽 작품은 안경매듭과 연봉매듭을 이용해 줄을 만들고 은으로 세팅된 공작석 보석 펜던트로 장식한 작품으로 두 작품모두 세련되고 현대적 느낌이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그림 33>, <그림 34>는 차명순 작품으로 <그림 33>는 분홍색의 끈으로 장고매듭을 엮고, 장고 매듭사이에 감색의 가락지매듭을 끼워 포인트를 준 형태이다. 매듭만으로 펜던트 형태와 목걸이 줄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34>는 안경매듭으로 끈을 엮고, 안경매듭사이에 브라운색의 가락지매듭을 끼워 장식하였으며, 목걸이 앞부분을 장고매듭으로 엮고, 낙지발술을 늘어뜨려 장식한 형태이다. <그림 35>은 류정민 작품으로 암나비매듭과, 수나비매듭, 장고매듭, 안경매듭, 도래매듭을 사용하여 목걸이 줄을 꾸미고 산호가지로 펜던트를 장식하였다. 목걸이 줄을 길게 하여 한복을 응용한 드레스에 잘 어울리도록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36>, <그림 37>은 2004년 s/s paris 컬렉션에 이상봉 디자이너가 선보인 작품으로 <그림 36>은 다양한 색의 가락지매듭과 구슬을 사용하여 목걸이를 장식하였는데, 가락지매듭 사이에 크고 작은 구슬을 끼워 포인트를 주고, 길이를 길게 디자인 하여 현대적이면서도 개성 있게 표현되었다. <그림 37> 역시 색색의 가락지매듭과 구슬을 사용해 여러 줄로 된 짧은 목걸이 형태로 표현되었다. 다양한 색의 사용으로 산뜻하면서도 강한 포인트를 주며, 현대적으로 디자인 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8> 매미매듭 목걸이



<그림 29> 안경매듭 목걸이



<그림 30> 나비, 끈디기매듭 목걸이



<그림 31> 가지방석, 귀도래매듭 목걸이

(출처 : 서울시 무형문화재 매듭장 김은영 작품)



<그림 32> 귀도래, 안경매듭 목걸이
(출처: 양순자 作, 매듭전 p.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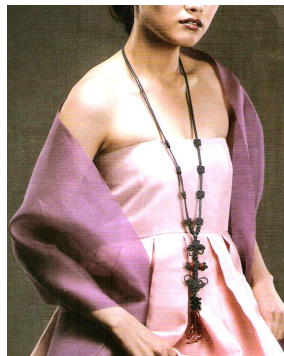


<그림 33> 장고매듭 목걸이



<그림 34> 안경매듭 목걸이

(출처: 차명순 作, 전통매듭과 현대의 만남 p.148)



<그림 35> 나비매듭 목걸이

(출처: 류정민 作, 월간 한복의 美 vol.52 p.14)



<그림 36> 가락지매듭 목걸이 I <그림 37> 가락지매듭 목걸이 II

(출처: Lie Sang Bong, COLLECTION 04 S/S PARIS p.131, 133)

2) 귀걸이

매듭을 응용한 현대 장신구 중에는 귀걸이를 나타낸 작품도 있는데, 작품 형태는 매듭 자체만을 이용하여 장식을 한 것도 있고, 금속류와, 옥석류 등의 보석을 같이 사용하여 장식한 것도 있었다.

<그림 38, 39, 40>은 매듭장 김은영의 작품을 참고하였다. <그림 38>은 안경매듭과, 각종 보석을 사용하여 장식한 귀걸이로, 귀걸이 윗부분은 베이지색 안경매듭을 사용하고 매듭위에 작은 산호 구슬 여러 개를 꿰어 장식하였다. 아랫부분은 산호 구슬을 끼운 은장식을 늘어뜨려 현대적인 느낌의 장식을 더하였다. <그림 39>는 괴불장식을 사용한 매듭 귀걸이로, 귀걸이 윗부분은 주황색의 12사 끈목을 사용한 안경매듭 장식을 붙이고, 아랫부분에 은칠 보에 산호구슬을 붙인 전통 방식의 괴불장식을 달아 전통적이면서도 독특한 느낌의 디자인을 연출하였다. <그림 40>은 위아래 도래매듭을 간단히 넣은 끈목에 자연가공 상태의 금패를 달아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귀고리 모양을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41>은 차명순 작품으로 남색의 끈목을 이용해 윗부분을 안경매듭으로

엮고, 중간에 노란색과, 붉은색의 가락지매듭을 끼워 장식했으며, 밑 부분을 끈목을 풀어 작은 술의 형태를 만들어 장식을 더한 형태로, 매듭만을 사용하여 귀걸이를 표현하였다. 단아하면서도 전통적 느낌이 나는 작품이다. <그림 42>는 노미자 작품으로 녹색과 분홍색의 매듭 끈을 사용해 안경매듭을 엮어 귀고리를 표현하였는데, 심플하면서도 매듭의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그림 38> 은장식 안경매듭 귀걸이 <그림 39> 피불장식 안경매듭 귀걸이
(출처: 서울시 무형 문화재 매듭장 김은영 작품)



<그림 40> 금패장식 도래매듭 귀걸이 <그림 41> 안경, 가락지매듭 귀걸이
(출처: 김은영 작품) (출처: 차명순 作, 전통매듭과 현대의 만남 p.148)



<그림 42> 안경매듭 귀걸이

(출처: 노미자 作, <http://kr.blog.yahoo.com/bleudeciel2005/864>)

3) 허리띠

매듭을 응용한 허리띠에는 매듭자체만으로 허리띠를 표현하거나 허리띠 일부분에 매듭장식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술과 같이 활용되어 장식을 더한 형태도 많이 나타났다. 또한 매듭에 쓰인 끈의 소재와 장식방법에 따라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되었다.

<그림 43>은 김은영 작품으로, 녹색의 매듭 끈을 사용하여 전복술매듭으로 띠 전체를 표현하고, 가운데 비취가 장식된 은 버클로 허리띠를 장식한 것이다.

매듭의 멋스러움을 띠에 그대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더했으며, 띠 중간에는 길이 조절도 가능하도록 하여 실용성도 겸하였다. <그림 44>는 연꽃, 블로초 등의 화형을 염색한 흰색노방 끝에 망사매듭으로 장식을 더한 허리띠로 전통적이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드는 작품이다. <그림 45>는 매듭장 김희진의 작품으로 허리띠를 연한 주황색의 매듭 끈 2줄로 형태를 만들고 끝 부분에 끈이기 매듭과 자주색, 연두색의 가락지매듭을 끼워 장식을 더한 형태이다. 심플하면서도 전통의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46>은 국화매듭의 크기를 달리하여 허리띠 앞부분을 장식한 작품들과 다양한 꽃문양이 수놓아진

붉은색, 청색 비단 허리띠 끝에 망사매듭으로 장식을 더한 작품들로 전통기법의 매듭을 활용해 우아함과 세련된 멋스러움이 느껴지도록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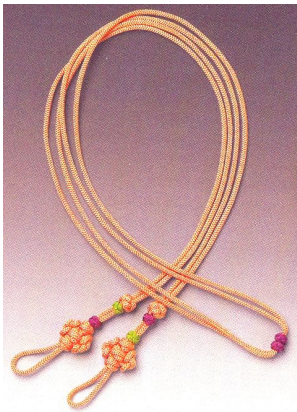


<그림 43> 전복술매듭 허리띠



<그림 44> 망사매듭 허리띠

(출처: 서울시 무형문화재 매듭장 김은영 작품)



<그림 45> 끈디기매듭 허리띠



<그림 46> 국화, 망사매듭 허리띠

(출처: 김희진 作, 아름다운 우리매듭 p.167, 173)

2. 노리개 주체를 응용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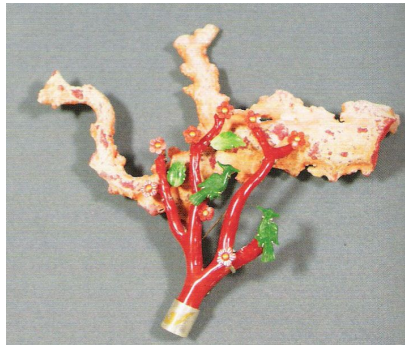
노리개 주체를 응용한 작품을 살펴본 결과 아이탬은 주로 브로치나, 목걸이를 활용한 것이 많았고, 재료는 대부분 전통 노리개에 사용되었던 은, 옥, 산호, 호박, 비취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형태 역시 전통 소재에 나타난 동물형, 식물형, 생활용품 형태 등을 모티브로 응용하고 이를 현대감각에 맞게 변형하여 표현한 것이 많았다. 따라서 주체를 응용한 작품을 아이탬 별로 브로치, 목걸이로 나누고 각 작품에 나타난 형태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브로치

노리개의 주체를 응용한 브로치는 전통 소재에 나타난, 화문, 동물문 등을 작가의 감각에 맞게 자유롭게 변형하여 주 장식으로 표현한 것이 많았는데, 형태는 현대적 브로치이지만, 우아하고 전통적 멋스러움이 잘 표현된 것이 대부분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림 47>은 김제권 작품으로 삼각노리개의 주체 중 하나인 큰 산호가지를 이용하여 브로치로 제작한 것이다. 산호가지를 큰 나뭇가지로 비유하고 나뭇잎과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를 비취로 조각하였으며, 군데군데 산호 꽃 장식을 배치하였다. 전체적으로 나무와 새의 조화를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48>은 김승희 작품으로 꽃문양이 조각된 옥을 이용하여 브로치로 제작한 것이다. 옥에 입체적인 꽃문양을 조각하고, 가운데 진주 구슬을 올렸으며, 은으로 나뭇잎 모양을 세팅하여 장식을 더했다. 깔끔하면서도 우아한 멋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49>는 조정희 작품으로 은으로 연잎을 표현하고 산호가지와, 산호 꽃 장식, 비취로 조각한 개구리 장식을 연잎 위에 장식하여 브

로치로 제작한 것이다. 이 브로치는 연꽃, 개구리 등 전통 문양에 많이 사용된 소재를 응용하여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으로 디자인 하였다. 손인숙 작품 중에선 주체에 표현된 형태를 브로치로 응용한 작품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림 50>은 화문, 동물문, 구름문 등을 호박, 자마노, 옥 등에 조각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주 장식을 꾸민 것이다. 현대적 디자인과 전통적인 장식이 어우러져 독특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표현된 작품이다. <그림 51>은 소뻬, 비취, 산호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나비문양을 디자인한 브로치이다. 동물의 뼈는 조선시대 노리개 주체에도 사용되었던 재료인데, 이 소재를 현대 장신구에도 적극 활용하여 나비의 날개 부분을 만들고 날개위에 화문(花紋), 구름문, 날개 무늬 등을 조각하여 장식을 더하였다. 나비 몸통부분은 산호와 비취를 사용해 흰색의 날개와 대비되어 색에 포인트를 주었다. 이 작품들은 전통 나비문양을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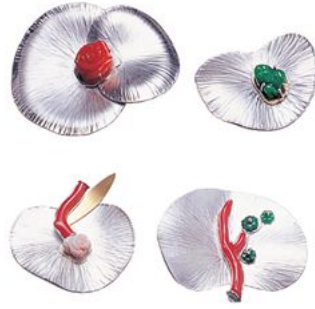
<그림 47> 산호브로치

(출처: 김제권 作, 왕실복식 600 貴·禮·衣 -궁중관모와 장신구-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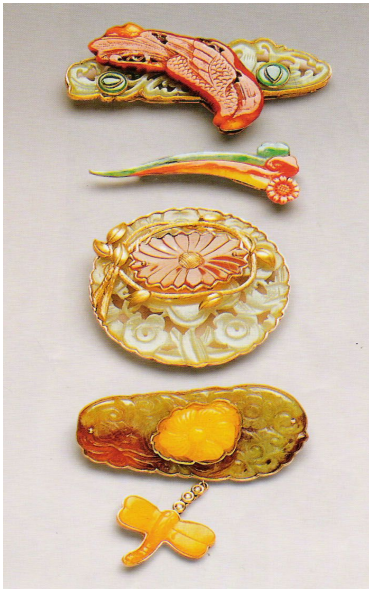
<그림 48> 꽃 브로치

(출처: 김승희 作, <http://sowyen.co.kr/technote7/board.php?board=gungang&page=3&indexorder=1&command=shop&corner=4>)



<그림 49> 연잎 브로치

(출처: 조정희 作, <http://www.sowyen.co.kr/crafthouse/html/2007-AUG-2.htm>)



<그림 50> 전통문양 브로치

(출처: 손인숙 作, 여성의 손끝으로 표현된 우리의 멋 -혼례자수품과 장신구- p.109,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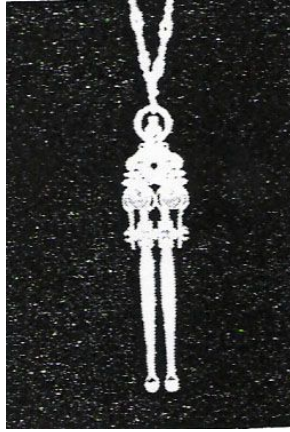


<그림 51> 나비 브로치

2) 목걸이

주체를 응용한 목걸이 작품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주체에 나타난 식물형태, 생활용품 형태 등을 펜던트로 응용하고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 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52>는 김정숙 작품으로 방아다리 주체를 펜던트로 응용한 것이다. 방아다리는 조선시대 생활용품을 형태를 본 뜬 주체로, 귀이개 한 쌍이 짝지어져 있는 모양인데, 김정숙 작품은 이 방아다리 모양을 은으로 만들어 재현하고 은줄에 펜던트로 달아 목걸이로 응용하였다. 전통 주체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려 표현한 것이 특징인 작품이다. <그림 53>은 김승희 작품으로 비취로 조각된 나비모양 장식을 목걸이 펜던트로 응용한 것이다. 전통 나비 문양을 비취로 조각하여 펜던트로 장식하고, 사각형 금도금 장식을 나비 장식 위와 아래에 달아 장식을 더하였으며, 목걸이 줄은 흑진주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장식미가 잘 표현되었다. <그림 54>는 최인숙 작품으로 투호주체를 목걸이 펜던트로 응용한 것이다. 전통 투호모양 주체를 산호로 조각하여 주 장식으로 응용하고 나뭇잎 모양이 뭉쳐진 형태의 은장식에 달아 펜던트로 장식하였다. 투호장식에도 은으로 세팅된 꽃 모양의 장식을 더하였다. 전통 투호모양을 그대로 재현하고 현대적 장식을 더해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52> 은 방아다리 목걸이

(출처 : 김정숙 作, 전통문양을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p.38)



<그림 53> 나비 목걸이

(출처: 김승희 作, <http://sowyen.com/technote7/board.php?board=tnjaryosil&page=3&indexorder=1&command=shop&corner=1>)



<그림 54> 투호 목걸이

(출처: 최인숙 作, <http://www.sowyen.co.kr/crafthouse/html/2007-AUG-3.htm>)

3. 노리개 술을 응용한 작품

노리개 술을 응용한 작품을 살펴보면, 아이템은 주로 목걸이, 귀걸이, 허리띠 등으로 나타났고, 응용형태는 술 자체만을 응용하여 작품으로 제작하거나, 각종 매듭, 보석과 같이 활용되어 제작되기도 하였다. 술의 종류는 봉술, 방망이술, 잔술 등이 사용되기도 하고 술 실만을 사용하여 현대적으로 변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술을 응용한 작품을 아이탬별로 목걸이, 귀고리, 허리띠로 나누고 각 작품에 응용된 술의 형태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1) 목걸이

술을 응용한 목걸이 형태는 대부분 매듭 끈을 이용하여 목걸이 줄을 제작하고, 펜던트 부분에서 다양한 종류의 술이나 보석 등이 활용되어 장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55>는 손인숙 작품으로 매듭 끈과 딸기술을 이용해 목걸이를 제작한 것이다. 브라운색에 매듭 끈을 2줄로 하여 중간에 안경매듭으로 장식을 더해 목걸이 줄을 만들고, 가운데 원통형의 비취장식을 펜던트로 연결하고, 펜던트 밑에 브라운 색의 딸기술을 달아 장식하였다. 전통적이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잘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그림 56>은 김은영 작품으로 매듭 끈과 봉술을 이용해 목걸이를 제작한 것이 작품은 펜던트에 은장식을 달고 은장식 아래에 2개의 주황색 봉술을 달아 장식한 것으로, 목걸이 줄은 봉술과 같은 색의 매듭 끈 1줄로 형태를 만들고 가지망석매듭과 날개 매듭으로 줄을 장식하였다. 펜던트에 술을 달아 화려함이 돋보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이 잘 표현되었다.

해외디자이너 작품에서도 술을 응용한 목걸이 작품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림 57>은 엠마누엘 옹가로 컬렉션에 나온 작품으로 목걸이 줄은 매듭 끈으로

만들고, 보석과 봉술형태를 응용한 긴 술을 줄 양쪽에 하나씩 연결한 것을 목에 걸고 가운데서 매듭을 매어 목걸이 형태로 표현하였다. 긴 술을 주 장식으로 사용하여 움직일 때, 술의 찰랑거림으로 인해 화려함이 강하게 연출되었으며, 우아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세련된 이미지가 잘 표현된 작품이다.



<그림 55> 딸기술 목걸이

(출처: 손인숙 작, 여성의 손끝으로
표현된 우리의 멋
-혼례자수품과 장신구- p.106)



<그림 56> 봉술 목걸이

(출처: 서울시 무형문화재 매듭장 김은영 작품)



<그림 57> 술 목걸이

(출처: Emanuel Ungaro, COLLECTION 05 S/S PARIS p. 151, 155)

2) 귀걸이

술을 응용한 귀걸이는 주로 봉술, 방망이술 등의 형태를 이용해 술실의 길이를 잔술처럼 짧게 하거나 또는 길게 응용하여 귀걸이에 늘어뜨려 장식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58, 59>은 김은영 작품으로 매듭과 술을 함께 활용해 귀걸이를 제작하였는데, <그림 58>은 금색 구슬 상하에 번데기 모양의 끈디기 매듭을 엮은 장식에 봉술을 늘어뜨려 장식한 형태이고, <그림 59>는 생쪽매듭에 금색 가락지매듭을 끼우고 밑에 남색 잔술을 늘어뜨려 장식한 귀걸이이다. 술의 장식으로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장식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림 60>은 이상봉 컬렉션에 선보인 작품으로 술에 구슬을 끼워 넣은 방망이술 형태에 어깨선이 넘는 길이까지 술실의 길이를 길게 늘어뜨려 귀걸이를 장식하였다. 또한 양쪽의 실색을 각각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대비시켜 색에 액센트를 줌과 동시에 화

려함을 강조하였다.



<그림 58> 술 귀걸이 I



<그림 59> 술 귀걸이 II

(출처 : 서울시 무형문화재 매듭장 김은영 작품)



<그림 60> 방망이술 귀걸이

(출처: Lie Sang Bong, COLLECTION 04 S/S PARIS p.131)

3) 허리띠

술을 이용하여 만든 허리띠는 매듭 끈이나, 구슬장식 끈에 술을 달아 장식하기도 하고, 술 실을 길게 만들어 허리띠 끈 자체로 표현되기도 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하게 응용되었다.

<그림 61>은 김은영 작품으로 짙은 노란색의 매듭 끈과 봉술을 이용하여 허리띠로 제작한 것이다. 허리띠를 매듭 끈 2줄로 형태를 만들고, 끈디기 매듭과 다양한 색의 가락지매듭으로 장식을 더하였다. 또한 끈 양쪽에 봉술과 타원형의 황옥, 분홍색의 가락지매듭을 각각 2개씩 달아 허리띠의 주 장식으로 제작하였다. 전통소재에 쓰이던 끈목, 술, 보석 등이 사용되어 전통의 멋스러움이 강조되면서도 현대 의복에 매치되어 우아함을 표현할 수 있는 장신구이다.

엠마누엘 웅가로의 파리 컬렉션에서도 술을 응용한 허리띠 작품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림 62>는 04 S/S 파리 컬렉션에 소개되었던 허리띠이다. 허리끈을 매듭과 구슬로 장식하고 길이를 짧게 또는 길게 디자인 하여 늘어뜨리면서 끝에 분홍색, 노란색, 붉은색 등의 술을 달아 장식한 형태로 우아하면서도 화려하게 연출하여 장식의미를 극대화 하였다. 웅가로의 05 S/S 컬렉션에서도 술을 이용한 허리띠 작품이 소개되었는데, 이 컬렉션에 소개된 허리띠는 술 머리를 봉술이나 방망이술 형태로 둥글게 하여 금사 또는 같은 색 술로 감아 고정시키고 술 실을 허리전체에 감고도 무릎 밑 선까지 늘어지도록 길게 디자인 하였다. 또한 레드와 퍼플 등의 강렬한 색을 사용해 장식의 액센트를 주어 전체적으로 화려함을 강조하면서도 우아하고 매혹적으로 연출된 것이 특징이다. (그림 63)



<그림 61> 봉술 허리띠
 (출처: 서울시 무형문화재 매듭장 김은영 작품)



<그림 62> 술 장식 허리띠
 (출처: Emanuel Ungaro, COLLECTION 04 S/S PARIS p.85)



<그림 63> 술 허리띠
 (출처: Emanuel Ungaro, COLLECTION 05 S/S PARIS p.153, 154)

IV. 작품 제작 및 해설

1. 제작 의도 및 방법

본 연구는 오늘날 전통장식소재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 장신구를 현대 디자인에 맞게 변형하여 전통장식소재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응용 소재는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 중 한복에 부착되어 의복에 아름다움을 더하며 뛰어난 심미성을 지녔던 노리개를 선택하여 현대 장신구로 응용하였다.

노리개를 응용한 현대 장신구 제작의 디자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리개의 전통적 표현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통 장식의 뛰어난 심미성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복에 포인트를 주며 의복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한 노리개의 특성을 토대로 현대 장신구에서도 의복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여 디자인 한다.

셋째, 전통 소재를 응용하되 전체적으로 현대 감각에 맞게 변형하여 세련되면서도 아름다운 심미안으로 장신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위의 설정방향을 토대로 작품의 주 장식 모티브와 제작 아이템을 선정하였다. 주 장식은 노리개의 전통 장식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므로, 노리개의 구성 중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하며 독특한 형태로 표현되었던 띠돈과 주체 부분을 모티브로 정하였고, 특히 주체의 재료는 다양한 종류 중에서 조선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금, 은, 옥석류, 보패류로 한정하여 응용하였다. 또한 제작 아이템은 현대 장신구 중에서 의복에 가까이 부착되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목걸이, 브로치, 허리띠를 선정하여 각각 4점씩 총 12점으로 제작하였다.

구체적인 작품제작 방법을 보면 목걸이, 브로치, 허리띠의 주 장식은 조선시대 전통 방식으로 재현된 노리개 주체와 띠돈을 이용하고, 현대적 감각을 더하기 위해 현대 장신구에 쓰이고 있는 보석, 금체인, 가죽 끈, 밴드 허리띠 등을 사용하여 제작에 활용하였다. 목걸이는 전통 방식으로 재현된 도금 호리병, 은투호, 나비, 호랑이 발톱 주체를 형태면에서 응용하고 소재에서 변형을 시도하여 펜던트(pendant)로 제작하고 옻석, 산호, 흑진주, 은 체인과 마감장식을 사용해 비즈워크기법으로 줄을 제작하였다. 브로치는 비취로 된 복주머니 주체와, 산호주체, 백옥으로 된 나비문양 띠돈, 수(壽), 부(富)의 글자가 연이어 새겨진 은 삼각의 주체를 응용하여 재해석 하였고, 장식 뒷부분을 금판으로 세팅하면서 핀을 대어 옷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허리띠는 백옥 박쥐문 주체, 호박 박쥐문양 띠돈, 파란 금니사 향갑, 원앙 주체를 응용하여 주 장식으로 꾸몄고, 허리띠 부분을 금체인과, 매듭 끈, 세무 끈, 밴드 허리띠를 사용해 제작하였다.

2. 작품제작


1) 작품 I: 금 호리병 목걸이

이 작품은 금도금 호리병삼작을 금24k로 확대 제작하여 목걸이 펜던트로 응용하고 오닉스 구슬을 사용하여 세 줄 목걸이로 제작한 것이다.(그림 64)

<표 12>는 호리병삼작을 응용한 작품 I의 제작지시서로 제작 의도는 전통 장식을 목걸이 펜던트의 소재로 사용하여 현대 장신구의 새로운 미적 표현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실물 제작에 있어서 펜던트는 금 24k를 사용하여 금속세공기법으로 전통모양에 맞게 재현하되 크기를 가로 2cm, 세로 5cm로 확대하여 디자인 하였고, 줄의 길이를 세 줄로 나누어 펜던트를 하나씩 번갈아 끼워 디자인의 색다름을 표현하였다.(그림 65) 목걸이 줄은 비례에 맞게 줄의 길이를 각각 18cm, 20cm, 22cm로 달리하면서 장식성을 더하였고, 검은색을 띤 오닉스 구슬을 사용하여 금색으로 된 펜던트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연출하면서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이 표현되도록 하였다. 줄의 제작은 크기가 6mm인 오닉스구슬을 피아노 줄에 꿰어 엮었고, 목걸이 끝 부분을 누름볼을 끼고 마감장식에 매듭을 걸어가면서 고정시키는 비즈워크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표 12> 작품 I 제작지시서

모티브	디자인 시안
	
소재	
금 24k 오닉스	
색상	
	
기법	
금속세공 비즈워크	목걸이 총 길이 : 18, 20, 22cm 펜던트 : 가로 2cm, 세로 5cm
디자인 의도	
모티브가 되는 금도금 호리병 세 개를 순금으로 제작하고 크기를 확대하여 디자인함. 펜던트 세 개를 길이를 달리한 목걸이 줄에 번갈아 끼워 디자인에 색다름을 표현함. 줄은 검은색 오닉스 구슬로 디자인 하여 펜던트를 돋보이게 연출하면서 안정되고 깔끔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함.	



<그림 64> 작품 I의 정면



<그림 65> 작품 I 의 펜던트 부분

2) 작품 II : 금 투호 목걸이

이 작품은 노리개에 사용된 투호주체를 금 24k로 제작하여 펜던트로 응용하고 산호로 목걸이 줄을 꾸며 제작한 것이다.

<표 13>은 작품 II의 제작지시서로 디자인 의도는 전통 방식으로 표현된 노리개 주체를 이용하여 전통 장식의 심미성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금과 산호를 조화시켜 고급스러운 느낌의 장신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실물 제작에 있어서 투호 펜던트는 금 24k를 사용하여 크기를 가로 3cm, 세로 5cm로 하여 금속세공으로 기법으로 제작하고 가운데 반구 산호 구슬을 붙여 전통 투호 모양으로 재현하였다.

목걸이 줄은 길이가 0.5cm 되는 원통모양의 산호를 붉은 실에 꿰고 하나씩 매듭을 지어 가며 세 줄로 만들고 사이사이에 금 고리를 끼워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투호장식 아래로도 줄을 통과 시켜 5cm 길이로 6줄의 산호를 끼운 줄을 늘어뜨려 장식을 더하였고, 작은 구슬로 엮은 만든 지름 1.5cm의 산호 구슬을 줄에 통과시켜 투호 펜던트 上下에 장식되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66, 67)

<표 13> 작품 II 제작지시서

모티브	디자인 시안
	 <p data-bbox="612 1256 1193 1285">목걸이 총길이 : 43.5 cm 펜던트 : 가로 3cm, 세로 5cm</p>
소재	
금24k 산호	
색상	
 	
기법	
금속세공 비즈워크	
디자인 의도	
<p data-bbox="288 1420 1252 1563">투호주체를 금으로 제작하여 펜던트로 응용하고 산호로 목걸이 줄을 꾸며 디자인 함. 목걸이 줄은 세 줄로 디자인하여 단줄 보단 화려하고 풍성하도록 디자인 하였고, 투호 아래로도 산호 줄을 늘어뜨려 장식을 더하였음. 전체적으로 금과 산호를 조화시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자 함.</p>	



<그림 66> 작품 II의 전면



<그림 67> 작품 II의 펜던트 부분

3) 작품 Ⅲ : 나비 목걸이

이 작품은 대삼작 옥나비 한 쌍 주체 중 하나를 펜던트로 응용하고 목걸이 펜던트에 알맞은 크기로 축소하여 제작한 것이다.(그림 68)

<표 14>는 작품 Ⅲ의 제작지시서로 디자인 의도는 옥나비 주체를 칠보, 진주, 산호, 공작석으로 화려하게 재현하면서 목걸이 줄은 흑진주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장신구의 색상을 정리해 주어 우아함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현 품에 의한 대삼작 나비 주체는 가로 6.5cm, 세로 6cm이지만, 본 작품에서는 나비 펜던트의 크기를 가로 3.5cm, 세로 2.5cm로 축소하여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옥나비 주체는 크기는 축소하였으나 전통방식으로 재현하여 옥에 전통나비 문양을 조각하고 옥나비 판 앞뒤에 금도금 장식을 붙이고 나비 앞부분에 초록색, 파란색, 하늘색, 노란색, 붉은색을 칠해 굵는 칠보기법으로 제작하였다.(그림 69) 제작한 앞부분 금도금장식에서 나비 몸통부분은 산호와 공작석을 사용하여 몸통부분에 끼어 장식하고 양 날개 부분의 금도금 장식에는 진주구슬 2개를 윗부분에, 산호구슬 2개를 아랫부분에 물려 고정하였다.

<표 14> 작품 III 제작지시서

모티브	디자인 시안
	 <p data-bbox="598 1355 1189 1384">목걸이 총길이 : 23cm 펜던트 : 가로 3.5cm, 세로 2.5cm</p>
<p data-bbox="335 577 414 607">소재</p>	
<p data-bbox="300 629 456 853">백옥 금도금 + 칠보 산호 공작석 진주 흑진주</p>	
<p data-bbox="335 880 414 909">색상</p>	
	
<p data-bbox="335 1144 414 1173">기법</p>	
<p data-bbox="327 1240 424 1346">조각기법 금속세공 칠보기법</p>	
<p data-bbox="678 1422 805 1451">디자인 의도</p>	
<p data-bbox="292 1512 1305 1691">대삼작 옥나비 한 쌍 중 하나를 모티브로 응용하고 목걸이 펜던트에 알맞은 크기로 축소하여 디자인함. 옥나비주체는 모티브 사진과 같이 금도금과 칠보, 산호, 진주, 공작석 등으로 장식해 화려 하도록 디자인함. 목걸이 줄은 흑진주로 디자인 하여 화려한 펜던트의 색상을 정리해 주면서 우아함이 표현되도록 함.</p>	



<그림 68> 작품 Ⅲ의 전면



<그림 69> 작품 Ⅲ의 펜던트 앞면

4) 작품 IV : 호랑이발톱 목걸이


이 작품은 호랑이발톱 주체에서 윗부분의 은장식을 제외하고 호랑이발톱 장식부분을 펜던트로 응용하고 은 체인 줄과 진주구슬로 목걸이 줄을 제작한 것이다.(그림 70)

호랑이 발톱 장식부분의 주체의 크기는 가로 6cm, 세로 7cm지만 본 작품에 서는 크기를 가로 4.7cm, 세로 6cm로 축소하여 목걸이 펜던트로서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작 지시서는 <표 15>와 같다.

작품 제작에 있어서 호랑이발톱 덮개부분은 전통기법과 같은 문양으로 은을 세공하여 피면상 모양으로 제작하여 장식성을 더하였고, 덮개윗부분의 구슬 넣는 부분엔 은과 색의 조화를 이루도록 진주구슬로 장식하였다. 덮개 아래 부분에는 미얀마 산 호랑이발톱 2개를 대칭으로 두고 붉은 공단으로 감싼 다음 덮개에 물려 고정시켰다. 또한 호랑이 발톱 옆 부분을 은으로 덧대었는데, 이것은 장식성을 더함과 동시에 발톱의 옆 부분이 마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그림 71)

목걸이 줄은 덮개 위의 양쪽에 은으로 원을 그리며 말린 모양의 고리부분에 각각 은 체인 줄을 연결하고 5cm 간격으로 지름 1.3cm의 진주 구슬을 양쪽에 3개씩 총 6개를 연결하여 단조로울 수 있는 목걸이 줄에 포인트를 주었다.

<표 15> 작품 IV 제작지시서

모티브	디자인 시안
	 <p data-bbox="612 1328 1193 1352">목걸이 총 길이 : 38cm 펜던트 : 가로 4.7cm, 세로 6cm</p>
소재	
은 호랑이발톱 진주	
색상	
	
기법	
금속세공 물림기법 비즈워크	
디자인 의도	
<p>호랑이발톱 주체에서 윗부분의 은장식을 제외하고 호랑이발톱 밑 장식부분에 주목하여 목걸이 펜던트에 알맞은 크기로 축소하여 디자인함.</p> <p>피면상 덮개의 고리부분에 은 체인 줄을 연결하고 사이사이에 진주 구슬을 연결하여 단조로울 수 있는 목걸이 줄에 포인트를 주도록 디자인 함.</p>	



<그림 70> 작품 IV의 전면



<그림 71> 작품 IV의 펜던트 부분




5) 작품 V : 복주머니 브로치

이 작품은 노리개에 사용된 복주머니 모양의 주체의 한 단면을 주 장식으로 응용하여 브로치로 제작한 것이다.

<표 16>은 작품 V의 제작지시서로 디자인 의도는 전통 노리개 주체를 현대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여 세련되면서도 독특한 느낌의 장신구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실물 제작에 있어 브로치의 주 장식은 비취를 사용하여 가로 5cm, 세로 4cm의 복주머니 모양의 한 단면을 입체적 형태로 조각하고 그 안에 수(壽)자 형과 좌우에 박쥐문양을 투각하여 모티브에서 보여 지는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였으며 제작된 복주머니 주 장식을 화분으로 묘사하고 주 장식 위에는 금 18k를 사용하여 나뭇가지 모양을 형상화 하여 제작하고 가지 사이사이에 지름 1cm, 0.8cm, 0.5cm, 0.4cm 등의 타원형과 원형의 진주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화분위의 나뭇가지에 꽃이 핀 모습이 표현되도록 장식하였다. 비취로 제작된 주 장식의 가장자리부분에는 금으로 마감 장식을 하고, 뒤에 금판과 핀을 덧대어 브로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72)

<표 16> 작품 V 제작지시서

모티브	디자인 시안
	 <p data-bbox="708 1301 1088 1330">브로치 크기 : 가로 5.5cm, 세로 6cm</p>
소재	
금18k 비취 진주	
색상	
	
기법	
조각기법 금속세공 비즈워크	
디자인 의도	
<p>복주머니 주체를 브로치 주 장식으로 응용하여 디자인함. 비취를 사용하여 복주머니모양을 조각하고 안에 수(壽)자 형과 좌우에 박쥐문양을 음각하여 디자인함. 복주머니 위에 금으로 나뭇가지를 형상화 하여 디자인 하고 가지 사이사이에 진주로 장식하여, 전체적으로 화분에 꽃이 열린 모습으로 표현하고자 함.</p>	



<그림 72> 작품 V의 전면

6) 작품 VI : 산호 브로치

이 작품은 호리병박과 꽃이 조각된 산호 주체를 브로치 주 장식의 모티브로 응용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표 17>은 작품 VI의 제작 지시서로 디자인 의도는 전통방식으로 표현된 조각기법을 그대로 응용하면서도 이와 조화될 수 있도록 조형적 변화를 시도하여 전통적이면서도 독특한 현대 장신구의 느낌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작품에서는 브로치의 주 장식을 산호를 이용하여 모티브에서 보여 지는 호리병박, 꽃, 줄기 등을 조각하여 디자인하고, 주 장식 위에 은과 산호 꽃 조각을 이용해 나뭇가지에 꽃이 핀 모습을 형상화 하여 장식을 더하였다. 나뭇잎 모양의 은장식에는 금도금으로 색에 포인트를 주었고, 산호꽃 가운데 부분 장식에도 금도금으로 색에 포인트를 주었다. 브로치의 주 장식은 가로 5cm, 세로 6.5cm로 제작하였고, 주 장식의 조각 사이에는 지름 1cm의 타원형 진주를 붙여 장식의 포인트를 주었다.(그림 73)

주 장식의 뒷부분은 나뭇가지로 표현된 은장식과 연결된 은판을 대고 핀을 덧대어 브로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표 17> 작품 VI 제작지시서

모티브	디자인 시안
	 <p data-bbox="724 1234 1082 1261">브로치 크기 : 가로 5cm, 세로 6cm</p>
소재	
은 산호 진주	
색상	
	
기법	
금속기법 조각기법	
디자인 의도	
<p>호리병박과 꽃이 조각된 산호 주체를 브로치 주 장식의 모티브로 응용하여 디자인 함. 브로치의 주 장식을 산호를 이용하여 모티브에서 보여 지는 호리병박, 꽃, 줄기 등을 조각하여 디자인하고, 주 장식 위에 은과 산호꽃조각을 이용해 나뭇가지에 꽃이 핀 모습을 형상화 하여 산호주체의 색다른 디자인 변형을 시도하고자 함.</p>	



<그림 73> 작품 VI의 전면

7) 작품 VII : 은문자 브로치

이 작품은 수(壽), 부(富)의 글자가 위아래로 투각되고 위에 덧개 장식이 붙여 있는 은문자 주체를 브로치로 응용한 것이다.

<표 18>은 작품 VII의 제작 지시서로 디자인 의도는 장식 전체를 문자로 이루어 독특한 디자인의 모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글자의 뜻처럼 좋은 의미가 담기 장신구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은문자 주체는 가로 3.2cm, 세로 9.5cm 이나 본 작품에서는 은문자 주체를 브로치로 이용하기 적당한 크기로 축소하기위해 수(壽)글자 윗부분을 잘라 길이를 7.5 cm로 줄여 제작하였다.

주 장식으로 응용되는 은문자모양은 가운데 큰 꽃모양과 양쪽에 가운데 보다 작은 꽃모양이 조각된 덧개와 수(壽)자와 부(富)자가 투각된 문자장식이 달려 있는 모습으로 전통표현방식 그대로 재현하였다. 또한 덧개부분의 꽃 장식 가운데 부분에 지름 4mm의 산호반구 구슬을 물림기법으로 고정하여 전통방식 모양으로 표현되도록 하였다.

전통방식으로 표현된 은문자 주 장식 가운데 수(壽)자와 복(福)자가 형상화된 가로 1.5cm, 세로 1.5cm 크기의 호박과 산호 장식을 붙여 브로치 장식에 포인트를 주었다.(그림 74)

<표 18> 작품 VII 제작지시서

모티브	디자인 시안
	 <p data-bbox="710 1234 1093 1267">브로치 크기 : 가로 3.5cm, 세로 9cm</p>
소재	
은 호박 산호	
색상	
	
기법	
금속세공 물림기법 조각기법	
디자인 의도	
<p>수(壽), 부(富)의 글자가 투각된 은문자 주체를 브로치로 응용함. 독특한 형태로 표현된 주체의 모양을 살리고자 앞부분은 전통방식으로 재현된 모습 그대로 표현하였고, 가운데 부분에 수(壽)자와 복(福)자가 투각된 호박과 산호 장식을 붙여 장식에 포인트를 줌. 장식 전체를 문자로 이루어 독특한 디자인을 나타내면서도, 좋은 의미가 담긴 장신구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함.</p>	



<그림 74> 작품 VII 전면

8) 작품 VIII : 옥나비 브로치

이 작품은 옥나비 띠돈의 나비문양의 옥판을 브로치의 주 장식으로 응용한 것이다.

<표 19>은 작품 VIII의 제작 지시서로 디자인 의도는 전통소재로 사용된 옥나비문양 판을 현대 감각에 맞게 재해석하여 디자인의 새로운 변형을 시도함과 동시에 다양한 색의 원석과 조화를 이루어 화려하면서도 우아함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VIII은 옥판을 가로 6.5cm, 세로 4.5cm크기로 확대하고 전통나비문양으로 조각하고 이 나비 판을 이용하여 꽃과 나비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브로치 디자인을 제작하고자 다양한 꽃모양으로 조각된 분홍색의 산호, 연보라색의 라벤더비취, 연한 담회색의 백옥, 색이 옅은 비취, 보랏빛의 자수정, 노란색의 금패 등을 옥나비판 위에 배치하고 금 18k 소재로 꽃 장식 주변을 넝쿨가지로 표현하여 장식을 더하였다.

또한 금으로 옥 나비판 가장자리 부분을 감싸고 뒤를 핀과 함께 세팅하여 브로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그림 75)

<표 19> 작품 VIII 제작지시서

모티브	디자인 시안
	 <p data-bbox="676 1294 1070 1323">브로치 크기 : 가로 7.3cm, 세로 5.2cm</p>
소재	
금18k 자수정 백옥 산호 비취 라벤더 비취	
색상	
	
기법	
조각기법 금속세공	
디자인 의도	
<p>옥나비 띠돈의 나비문양 옥판을 브로치의 주 장식으로 응용함. 꽃과 나비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표현하고자 나비옥판을 가운데 배치하고, 비취, 라벤더비취, 산호, 백옥 등으로 꽃모양을 조각하여 옥나비 판을 장식함. 금으로 꽃 장식 주변을 넝쿨가지로 표현하여 장식을 더함.</p>	



<그림 75> 작품 Ⅷ의 전면

9) 작품 IX : 향갑 장식 허리띠

이 작품은 노리개 주체로 쓰인 파란 금니사 향갑을 허리띠 주 장식으로 응용한 것이다.

<표 20>은 작품 IX의 제작지시서로 제작 의도는 금도금된 향갑의 겉 부분만을 응용하여 현대 장신구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소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작품 IX의 제작 방법은 주 장식으로 사용된 파란 금니사 향갑의 문양을 전통 문양으로 재현하고 크기는 가로 4cm, 세로 4.3cm로 제작하여 금속세공기법으로 투각되게 하여 안이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겉에 표현된 나비 문양에 맞게 파란기법을 이용하여 파란을 앞뒤로 칠하여 색에 포인트를 주었다. 또한 꽃모양과 나뭇잎모양으로 장식된 향갑 덮개부분에 같은 금도금소재로 고리를 만들어 허리끈이 되는 체인에 걸 수 있게 하였다.

허리띠의 줄 앞부분에 다양한 종류의 체인을 연결하여 장식을 더하도록 하였는데, 체인의 처음 윗줄과 마지막 줄에는 금니사 향갑에 쓰인 파란과 금색의 색상에 맞게 지름 1cm의 푸른색의 터키석과 노란색의 호박 구슬을 사용하여 체인 사이사이에 달아 색상에 조화를 이루도록 장식을 더하였다.

또한 메인으로 사용된 허리띠 체인은 사이사이에 링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줄 한 쪽 끝에 있는 랍스터 마감장식을 허리띠에 걸어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허리띠 끝 부분엔 주 장식인 향갑을 달아 장식에 포인트를 주도록 하였다.(그림 76, 77)

<표 20> 작품 IX 제작지시서

모티브	디자인 시안
	 <p data-bbox="603 1153 1184 1182">허리띠 총길이 : 96cm 주 장식 : 가로 4cm, 세로 4.3cm</p>
소재	
금14k 호박 터키석	
색상	
 	
기법	
금속세공 파란기법 비즈워크	
디자인 의도	
<p data-bbox="290 1326 829 1355">파란 금니사 향갑을 허리띠 주 장식으로 응용함.</p> <p data-bbox="290 1364 1310 1471">허리띠 앞부분에 다양한 종류의 체인을 연결하여 장식을 더하도록 하였는데, 체인의 윗 부분과 아래 부분은 금니사 향갑에 쓰인 파란과 금색의 색에 맞게 터키석과 호박 구슬을 사용하여 체인 사이사이에 달아 색상에 조화를 이루도록 장식을 더하였음.</p> <p data-bbox="290 1480 1069 1509">허리띠 끝 부분엔 주 장식인 향갑을 달아 장식에 포인트를 주도록 함.</p>	



<그림 76> 작품 IX의 전면



<그림 77> 작품 IX의 주 장식 부분

10) 작품 X : 박쥐문 장식 허리띠

이 작품은 박쥐문양 띠돈을 허리띠 주 장식의 모티브로 응용하여 제작한 것이다.(그림 78)

<표 21>은 작품 X의 제작지시서로 디자인 의도는 전체적으로 전통문양과 기법들이 주를 이루어 제작되었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디자인의 변형을 시도하여 전통의 멋스러움과 함께 현대적 장신구로서 우아함을 잘 나타내려고 하였다.

작품 X은 모티브로 응용된 박쥐문양을 가로 5cm, 세로 4cm 의 호박과 옥 판에 조각하여 허리띠의 주 장식으로 제작하고, <그림 79> 자주색과 짙은 노란색의 끈목을 사용하여 서양매듭기법으로 짠 매듭 허리띠에 옥판과 호박판을 3.5cm 간격으로 번갈아 배치하여 각각의 보석 판 색상에 맞는 실로 매듭 허리띠에 꿰매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표 21> 작품 X 제작지시서

모티브	디자인 시안
	 <p data-bbox="592 1227 1174 1256">허리띠 총 길이 : 160cm 주 장식 : 가로 5cm, 세로 4cm</p>
소재	
호박 백옥 매듭끈	
색상	
	
기법	
조각기법 매듭기법	
디자인 의도	
<p>박쥐문양 띠돈을 모티브로 응용하여 허리띠 주 장식을 디자인함. 백옥과 호박을 사용하여 전통박쥐문양을 조각한 주 장식을 서양매듭으로 짠 허리띠에 일정한 간격으로 번갈아 배치하여 장식하였다. 전체적으로 우아함과 전통의 멋스러움이 표현되도록 디자인 함.</p>	



<그림 78> 작품 X의 전면



<그림 79> 작품 X의 주 장식 부분

11) 작품 XI : 원앙 장식 허리띠

이 작품은 고리장식에 원앙 한 쌍이 달려 있는 노리개의 주체를 허리띠 끝부분의 주 장식으로 응용한 것이다.

<표 22>는 작품 XI의 제작지시서로 제작 의도는 은 원앙 한 쌍의 주체를 금 24k, 산호, 비취를 이용해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표현되도록 변형하고자 하였고, 이 장식을 현대 장신구의 소재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모티브에서 보여 지는 은으로 제작된 원앙 한 쌍과 고리가 달린 덮개 장식을 금 24k를 사용하여 원앙의 크기를 가로 5cm, 세로 3.2cm 덮개 장식은 가로 4.5cm, 세로 4.2cm로 제작하였고, 원앙 머리 부부엔 지름 4mm의 산호와 비취 구슬을 물림기법으로 고정하여 암수를 나타내는 장식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덮개 장식의 꽃 조각부분에도 산호 반구구슬을 붙여 장식을 더하였다.

끈은 화려한 주 장식의 색상을 정리해 주면서 엔틱적인 느낌이 나는 고풍색의 세무 끈을 이용해 허리띠를 제작하였다. 끈의 크기를 폭 1.5cm, 길이 187cm로 제작하고, 고리가 달린 끈 마감장식을 사용해 양쪽 끝부분을 마무리하여 고리 부분에 금 오링을 연결하여 양쪽에 원앙 장식을 하나씩 달아 허리띠에 포인트를 주었다.(그림 80, 81)

<표 22> 작품 XI 제작지시서

모티브	디자인 시안
	 <p data-bbox="600 1267 1190 1294">허리띠 총 길이 : 187cm, 주 장식 : 가로 6cm, 세로 8cm</p>
소재	
금24k 산호 비취 인조세무	
색상	
	
기법	
금속세공 물림기법	
디자인 의도	
<p>원양 한 쌍으로 이루어진 주체를 허리띠의 주 장식으로 응용하여 디자인함. 암수 한 쌍으로 된 원양과 고리장식을 금으로 제작하고 원양 머리 부분에 산호와 비취를 물려 암수를 표현하는 장식을 함. 고리에 꽃으로 장식된 가운데 부분엔 산호 구슬을 붙여 장식을 더하였음. 금과 산호, 비취를 이용해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주 장식을 표현하였고, 이 장식을 세무 끈 끝에 걸어 허리띠에 포인트를 주도록 함.</p>	



<그림 80> 작품 XI의 전면



<그림 81> 작품 XI의 주 장식 부분

12) 작품 XIII : 옥 장식 허리띠

이 작품은 도식화된 수(壽)자와 上下에 박쥐문양이 음각된 호박 노리개 주체를 허리띠 옥 장식에 응용하여 제작한 것이다.(그림 82)

<표 23>은 작품 XIII 제작지시서로 디자인 의도는 현대 의복에 많이 쓰이는 밴드 허리띠에 전통 문양이 조각된 장식을 새롭게 매치하여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장신구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허리띠의 소재는 원피스에 매치되어 많이 사용되는 밴드 허리띠로 폭 10cm, 둘레 66cm 되는 크기의 검은색으로 선택하였다. 이 밴드 허리띠는 신축성이 있어 어느 정도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장식을 부착할 수 있는 뒷부분에 갈고리 2개가 달려 있어 허리띠 나머지 끝부분 구멍에 끼어 띠로 맬 수 있게 되어 있다.

허리띠의 주 장식이 되는 옥 장식은 모티브에서 보여 지는 호박주체의 조각 문양을 그대로 응용하여 디자인 하였는데, 옥판을 가로 7cm, 세로 9.5cm로 제작하고 이 안에 전통 조각문양을 확대하여 조각하였다.(그림 83)

제작된 주 장식을 검은색 밴드 허리띠 앞부분에 부착하여 작품 XIII를 완성하였다.

<표 23> 작품 XIII 제작지시서

모티브	디자인 시안
	
소 재	
백옥 밴드허리띠	
색 상	
	
기 법	
조각기법	<p>허리띠 크기 : 폭 10cm, 길이 72.5cm 주 장식: 가로 7cm, 세로 9.5cm</p>
디자인 의도	
<p>도식화된 수(壽)자와 上下에 박쥐문양이 음각된 호박 노리개 주체를 허리띠 옥 장식에 응용하여 디자인함.</p> <p>모티브 사진에서 보여 지는 호박주체의 조각문양을 백옥 판에 확대 조각하여 주 장식으로 응용하고 이 장식을 옥판과 같이 폭이 넓은 검은 밴드 허리띠 앞부분에 붙여 장식되도록 디자인함.</p> <p>현대 의복에 많이 쓰이는 밴드 허리띠에 전통 문양이 조각된 장식을 새롭게 매치하여 우아하면서도 멋스러운 장신구 느낌을 표현하고자 함.</p>	



<그림 82> 작품 XII의 전면



<그림 83> 작품 XII의 주 장식 부분

V. 결 론

우리나라의 전통 장신구는 뛰어난 장식적 표현과 더불어 자연주의와 현실적 사상에 입각한 염원과 가치관을 담은 상징물로서 대변되었다. 이러한 전통 장신구는 서구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통 양식과 서구양식의 이중구조 속에서 전통을 꺾다 서구의 의복문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점차 그 쓰임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재료가 개발되고 글로벌화 된 세계의 수많은 디자인의 장신구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현대 의복에 맞는 장식품을 만들어 냄에 따라 전통 장신구의 쓰임은 쇠퇴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 장신구가 뛰어난 심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장식문화에 밀려 그 쓰임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 장신구를 응용한 현대 장신구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전통 장식 소재에 대한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범위는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 유형 중 의복에 가까이 부착되어 아름다움을 배가 시켰던 노리개로 정하여 응용하였고, 이에 이론적 연구로서 조선시대 사회적 배경과 여성장신구 유형, 노리개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사회로 의복은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었으나 장신구는 의복과 달리 착용 면에서 체계적인 계통이 확립되었고, 신체의 각 부분에 따라 기능적으로 세분화 되는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여자 장신구는 머리에 하는 수식과 몸에 차고 다니는 패식, 기타 장신구 등으로 나누어지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다.

조선시대 다양한 여성 장신구 중 노리개는 여자 한복의 짧은 저고리, 긴 치마길이에 비례를 이루면서, 색채와 형태면에서 포인트를 주어 의복에 아름다움을 배가 시켜 주었던 대표적인 장신구였다. 노리개는 띠돈, 끈목, 주체, 매듭, 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띠돈과 주체의 형태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염

원과 생활상을 고스란히 표현하며 독특한 미적 표현을 이루었고, 금속류, 옥석류, 보패류 등의 사용과 다양한 장식 기법은 현대 장신구의 소재에 쓰여도 충분할 만큼 뛰어나고 세련된 심미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조선시대 노리개를 응용한 현대 장신구 디자인의 설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리개의 전통적 표현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통 장신구의 뛰어난 심미성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노리개가 한복에 포인트를 주며 의복의 아름다움을 배가 시켜준 장신구였으므로, 이점을 토대로 현대 장신구에서도 의복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여 디자인 한다.

셋째, 전통 소재를 응용하되 전체적으로 현대 감각에 맞게 변형하여 세련되면서도 아름다운 심미안으로 장신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 주 장식의 모티브와 제작 장신구의 아이템을 선정하였는데, 주 장식은 노리개의 전통 장식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부분으로 노리개의 구성 중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하며 독특한 형태로 표현되었던 띠돈과 주체부분을 모티브로 정하였고, 종류로는 현대 장신구 중에서 의복에 가까이 부착되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목걸이, 브로치, 허리띠를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각각 4점씩 총 12점을 제작하였다.

목걸이는 전통 방식으로 재현된 도금 호리병삼작, 은투호, 나비, 호랑이발톱 주체를 주 장식으로 활용하였고, 브로치는 비취 복주머니 주체, 산호 주체, 옥 나비문양 띠돈, 은문자 주체를 주 장식으로 활용하였으며, 허리띠는 파란 금니사 향갑, 호박 박쥐문양 띠돈, 원앙 주체, 옥 박쥐문 주체를 주 장식으로 응용하여 현대 장신구를 제작하였다.

노리개를 응용한 장신구 제작을 통해 노리개의 전통 재료와 형태가 현대 장신구 디자인 소재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전통

장식 소재의 확대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또한 노리개 전통 표현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현대 장신구가 독창적이면서도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재창조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어, 전통 장식에 대한 뛰어난 심미성을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조선시대 노리개를 응용한 현대 장신구를 디자인 하여 독창성과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장신구 디자인을 제시 할 수 있었으며, 전통 장식 소재의 확대와 재창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전통 장신구 중 노리개만을 모티브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제작 아이템에서도 목걸이, 브로치, 허리띠로만 한정하여 제작하였다.

앞으로 전통 장신구의 시대별, 종류별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고 다양한 아이템으로 디자인 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에 한국의 전통 장식 소재가 경쟁력 있는 상품의 소재로 확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가나아트센터, 『매듭전』, 서울: 가나아트센터, 2002.
- 김기숙, 『朝鮮服飾美術』, 서울: 열화당, 1994.
- 국립민속박물관, 『여성의 손끝으로 표현된 우리의 멋 - 혼례자수품과 장신구-』, 서울: 신유문화사, 1999.
- 김영숙, 『朝鮮朝王室服飾』,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07.
-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2004.
- 김은영, 『전통매듭』, 서울: 대원사, 1989.
- 김제권, 『왕실복식 600 貴·禮·衣 -궁중관모와 장신구-』, 서울: 한양여자 대학 디자인정보교육센터, 2009.
- 김희진, 『아름다운 우리매듭』, 서울: 그래픽네트, 2008.
- 담인복식미술관, 『담인복식미술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 서금, 조동원 · 김대식 · 이경록 · 이상국 · 홍기표 (역), 『고려도경』, 서울: 황소자리 출판사, 2005.
- 석주선, 『裝身具』,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1.
- 유송옥, 『韓國服飾史』, 서울: 수학사, 1998.
- 유희경 · 김문자, 『개정판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1/2002.
- 이경자, 『전통 한복의 멋 노리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 이경자 · 홍나영, 『한국의 옛 노리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 이경자 · 홍나영 · 장숙환, 『우리옷과 장신구』, 서울: 열화당, 2003.
- 이성미, 『우리 옛 여인들의 멋과 지혜』, 서울: 대원사, 2002.
- 임상임 · 안명숙, 『전통매듭』, 서울: 교문사, 2003.

- 임영주, 『한국의 전통문양』, 서울: 대원사, 2004.
- 장숙환, 『전통장신구』, 서울: 대원사, 2002.
- 전완길, 『韓國化粧文化史』, 서울: 열화당, 1987.
- 차명순, 『전통매듭과 현대의 만남』, 서울: 느림출판사, 2002.
- 간호섭, “조선시대 여성수식(首飾)을 반영한 현대패션디자인 연구 - 비녀, 띠
잠을 중심으로 -”, (사)한국공중복식연구원 논문집, 제 10권 10호,
2008.
- 김봉희,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의 현대적 변용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07.
- 김정숙, “傳統 紋樣을 응용한 裝身具 디자인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정희, “규방용품의 형태를 응용한 금속노리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혜영, “바다이미지를 응용한 노리개 디자인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조형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진영, “조선시대 보패류의 사용과 금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8.
- 홍복의, “遺物 繡노리개와 現代 繡노리개의 比較 研究 - 1990年 市中 繡노리
개를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COLLECTION Vol.7 2004 S/S PARIS & MILANO』, (주)동아TV, 2003.
- 『COLLECTION Vol.9 2005 S/S PARIS & MILANO』, (주)동아TV, 2004.
- 노미자, <http://kr.blog.yahoo.com/bleudeciel2005/864>
- SOWYEN, [http://sowyen.co.kr/technote7/board.php?board=gungang&page
=3&indexorder=1&command=shop&corner=4](http://sowyen.co.kr/technote7/board.php?board=gungang&page=3&indexorder=1&command=shop&corner=4)

SOWYEN, <http://www.sowyen.co.kr/crafthouse/html/2007-AUG-2.htm>

SOWYEN, <http://www.sowyen.co.kr/crafthouse/html/2007-AUG-3.htm>

SOWYEN, <http://sowyen.co.kr/technote7/board.php?board=gungang&page=3&indexorder=1&command=shop&corner=1>

『월간 한복의 美』, (주)한복미디어, vol.52, 2007.

ABSTRACT

A Study on Comtemporary Ornaments Design by Appling Trinketry of Chosun Dynasty

Kim, Mi-Ok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ornaments culture of our country is not inferior than that of other country, and is cultural heritage with long history and tradition. With its outstanding manufacturing method that is famous for its delicacy and gorgeousness, it has been acknowledged its value as symbol of inimitable formative beauty that possess sense of beauty reflect life environment.

However, inside the social change where western culture rapidly get into our country, such traditional ornament undergo dual structure of both traditional and western mode. And then, its usage has dwindled away and has parted from the interest and recognition of current Korean, because western dress culture has took major.

Under this situation,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issue that the usage of traditional ornament has been disappeared due to the culture of western ornament, it has onstanding expression for beauty

though. And to improve thi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finding cultural individuality with recreation of the material of traditional ornament by proposing contemporary ornament design, and furthermore, presenting motivation for revitalization.

Among woman's ornament in Chosun dynasty, by choosing trinketry that attached on the dress with doubling beauty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we tried practical application. In theoretical prospect of this study, we looked into social background, type of woman's ornament, and trinketry, and its result is followings

Chosun dynasty is the society based on strict Confucian idea, and its dressing is expressed through temperate beauty. But for ornament, differ from dressing, has systematical lineage in terms of wearing, and shows various aspect that is functionally broken down depend on its position on the body. Expecially for woman's ornament, it has much varieties that is divided into ornament to put on hair(Soo type), ornament to wear (Pae type), and other ornament.

Among woman's ornament in Chosun dynasty, trinketry is key ornament that doubled beauty for clothes by providing point in terms of color and style, and by being proportionated to short jacket and long skirt of Korean woman's transactional clothes, Hanbok. Trinketry is composed by band, braid, main body, knot, and tassel. Expecially the shape expressed on band and main body entirely represents the desire and life style of woman in Chosun dynasty, and accomplishes inimitable mode of beauty. The use of metals,

precious stones, and shellware, and various decoration method have refined aesthetic feature and are as much superior as to be used in the subject matter of contemporary ornament.

In making contemporary ornament applied by trinketry, as a research to find contemporary design, we looked into design applied knot by each component of trinketry that is common in market, design applied main body and design applied tassel. Referring this research, we can set the direction of design as follow.

First, by actively utilizing traditional expression method of trinketry, outstanding aesthetic feature of traditional ornament needs to be informed.

Second, based on the idea that trinketry is the ornament that provide point and decorate beautifully on Hanbok, select the item that can provide point on the clothes from contemporary ornament, and design.

Third, while apply traditional matter, change it to meet current sense, and make it to give satisfaction through an aesthetic sense for its user.

Based on this, motive of main decoration of product and item of produced ornament are selected. As main decoration, it is the part where traditional decoration of trinketry is directly expressed. And decide band and main body as motive that contains various symbols and expressed in imitable pattern. For the kind of ornament production, select item as necklace, brooch, and belt, and produced

total 12 peaces, 4 peaces each. And we can get following result.

Confirmed that traditional material of trinketry can be used sufficiently as design material of comtemporary ornament, and can grope the possibility of expansion and development for traditional ornament material.

Also, we could confirm that current ornament can be recreated with unique and distinctive design by actively utilizing traditional expression method of trinketry. In addition, could provide practical motivation that can inform outstanding esthetic sense of traditional ornament.

Wish that this study may be a practical motive that make people recognize that decoration material of trinketry could be naturally harmonized with contemporary ornament. And also wish that traditional decoration material can be expanded as material for competitive product in abroad as well as in the country, through improving the design of contemporary ornament by appling traditional decoration in future. Furthermore, expect that traditional expression of beauty in trinketry and other traditional ornament is considered important, and preserved and succeed as valuable work of art.